

# 韓醫學 研究方法論에 관한 研究

- 普遍性과 特殊性을 中心으로 -

圓光大學校 韓醫學專門大學院 韓醫情報學科<sup>1</sup> · 圓光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sup>2</sup>

柳秉完<sup>1</sup> · 鄭憲堃<sup>2</sup> · 李始炯<sup>1</sup> · 趙恩禧<sup>1</sup> · 琴炯樹<sup>1</sup> \*

## A Study on the Methology of Oriental Medicine

Yoo Byoung-wan<sup>1</sup> · Jeong Heon-young<sup>2</sup> · Lee Si-hyeong<sup>1</sup> · Cho Eun-hui<sup>1</sup> · Keum Kyeong-soo<sup>1</sup> \*

<sup>1</sup>Dept. of Oriental Medical Informatics, Professional Graduate school of Oriental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sup>2</sup>Dept.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Every field of studies form its theory through its universal method and own method based on respective views with its own culture and contributes to academic advancement with appropriate research methodology within theory. Therefore, If methology of oriental medicine is not include universal method and particularity method in research methology, it will not obtain scientific character and lose its logic.

The methology of oriental medicine is classified by two approaches, universal methology of natural science which inspect the effect through experimentation on the fact, and particularity methology of human science which understand the effect through translation on the value(politics, economics, society, philosophy, history and culture). In this paper, the methodology of oriental medicine contains duality including both universality and particularity.

Key Words : universal methology, natural science, particularity methology, human science

## I. 緒論

### 1. 研究背景 및 目的

#### 1) 研究背景

古來로 東洋에서는, 인체의 질병에 대하여 精靈(sprit)이나 惡魔(demon)의 橫暴로 여겨 巫醫가 성행하였고 질병을 극복하기 위해 巫術者가 '矢'나 '爰'와 같은 무기를 사용하다가 '酉' 즉 '酒'로 方術이 변천<sup>1)</sup>한 것을 '醫'의 解字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동양의 原始的 醫術의 모습은 西洋의 경우에도 별반 차이가 없다.

\* 교신저자 : 금경수.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전라북도 익산시 신용동 344-2  
E-mail : kskeum@wonkwang.ac.kr  
Tel : 063-850-6808.

접수일(2008년 10월 21일), 수정일(2008년 11월 4일),  
게재확정일(2008년 11월 12일)

1) 한국전통의학연구소 編著. 한의학개설. 서울. 영림사.  
pp.19-20.

또한 인간을 대상으로 하여, 질병 발생 원인과 과정을 규명하고 질병 치료를 위한 일체의 지식 및 기술체계로 요약될 수 있는 醫學의 개념<sup>2)</sup> 역시 東·西洋 모두 동일하다.

그러나 西洋의 고대 희랍에서는 자연 관찰의 결과로 엠페도클레스의 4원소설(地·水·火·風)<sup>3)</sup>과 四體液說<sup>4)</sup> 등의 물질적 시각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17세기 이후에는 合理主義와 經驗主義에 의한 心身분리의 二元論에 따른 해부학 등 자연과학의 눈부신 발달과정에서 醫學 또한 實證主義의인 思考에 입각하여 인체와 질병을 物質의 시각에서 觀察하고 그것을 客觀化시키는데 열중하였다.<sup>5)</sup>

반면 동양의학인 韓醫學은 易經에서 비롯된 天人相應<sup>6)</sup>에 따른 자연과 인간 간의 결합과 陰陽五行이라는 사물의 운용과 분류체계<sup>7)</sup>를 중심으로 한 心身一元의 思考에 입각하여 ‘黃帝內經’ 등의 醫學原典에 整合의으로 발전하면서 서양의학과는 醫學이라는 始原的 유사성과 개념의 동일성에도 불구하고 현재에서는 의학적 이론과 그 방법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동·서 의학의 단순한 이질성에만 머물러 않고 실험과 재현 가능한 검증이라는 실증주의적 계량과학의 일방적 기준에 따라 韓醫學을 비과학적인 전통적 민간의술로 격하시키면서 과학적 우

열의 현실에 이르고 있다.

韓醫學이 “과학인가?”와 韓醫學이 “과학적으로 연구되는가?”는 현재의 현재 韓醫學 처한 문제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즉 한의학이 과학이기 위해서는 과학의 결과라 할 수 있는 논리적이고 체계화된 의학적 지식의 집합으로서의 요건이 필요하며, 다음으로 이것이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 연구되는 방법이 요구된다 할 수 있다. 특히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과정인 연구방법의 경우는 韓醫學의 과학성을 증명하고 韓醫學을 보다 효과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그러나 韓醫學 연구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이 아직 성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個別的(객관성 있는 연구방법이지만 일부 연구자에 의해 산발적으로 행해지는 방법), 恣意的(객관화되고 검증되지 않은 방법), 一方的(자연과학적 연구방법에 치우친 방법) 연구방법은 韓醫學 내부의 혼란과 비효율을 야기하고 있다.

醫學은 인간이 그 대상이기 때문에 인간의 특성에 따른 물질과 정신 및 문화적 측면을 가진 일종의 人間學<sup>8)</sup>이라 할 수 있다.

韓醫學 또한 오랜 역사적 전통 속에서 계승되고 발전 되어온 우리의 人間學으로서 韓醫學의 물질과 정신 및 문화적인 지식 체계는 구체적인 체계화의 과정인 과학을 통하여 접근하고 연구되어야 한다.

또한 그 구체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는 韓醫學의 研究方法는 研究方法의 形式과 內在的方法 등으로 구체화 되어야한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韓醫學의 현실은, 획일적인 자연과학적 시각에 따른 과학성의 疑問과 그러한 시각에 따른 研究方法도 구체화되지 못하여 과학적 普遍性을 입증하기에는 形式的·內在的 論理性이 부족하며 무엇보다도 한의학이 가지는 人間學으로서의 독특한 人文學的 特殊性을 감안하여 연구할 수 있는 研究方法가 종합적으로 정리되고 구체화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韓醫學의 科學的인 研究方法의 필요성은 물론 그 방법의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도

2) 최환수. 한의학 방법론에 관한 고찰. 대전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9. p.1.  
 3) 김용욱. 음양오행을 과학이탈 수 있는가. 과학사상. 1993(5). p.12.  
 4) 강신역. 몸의 역사 몸의 문화. 서울. 휴머니스트. 2007. p.84.  
 四體液說 : 고대 희랍의 히포크라테스에 의해 제기되어 그리스와 로마시대 이래 9세기까지 인체 구성원리에 대한 의학적 지식으로 영향을 미쳤다. 기본적으로 인간의 몸이 네 가지의 체액인 혈액(血液, blood), 점액(粘液, phlegm), 황담즙(黃膽汁, yellow bile), 흑담즙(黑膽汁, black bile)으로 차 있으며, 체액들 사이의 균형이 맞으면 건강한 상태이고 모든 병과 심신의 장애는 체액들 중 하나라도 모자라거나 넘치는 것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하였다.  
 5) 김종열, 김우중 編著. 동서의학 비교연구. 서울. 계축문화사. 1994. pp.17-18.  
 6) 김종열, 김우중 編著. 동서의학 비교연구. 서울. 계축문화사. 1994. p.14.  
 7) 김시천. 상상력의 과학 기, 음양오행 그리고 한의학적 신체론. 시대와 철학. 2006. 17(2). p.178.

8) 최환수. 한의학 방법론에 관한 고찰. 대전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9. p.1.

韓醫學의 普遍性和 特殊性이 모두 충족되는 포괄적인 研究方法의 整理가 絶실히 要求되고 있다.

## 2) 研究目的

韓醫學은 앞서 記述한 것처럼 東洋 즉 우리의 人間學的인 지식체계<sup>9)</sup>로써 ‘學問’ 또는 ‘學’의 범주에 속해 있다는 것을 의심하는 경우는 그리 흔하지 않다.

그러나 ‘科學’이라는 비교적 구체화된 용어로 韓醫學이 현대의 과학적 영역에 속하는가에 대해서 답하기 곤란한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우리 東洋의 學問觀이 문화발전의 기본이 되는 지식의 체계를 수립하는 것 보다는 이를 어떻게 理解하여야 할 것인가를 기본으로 삼은 일련의 문화적 思维方式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sup>10)</sup>

우리에게서 ‘學’ 또는 ‘學問’은 일종의 ‘敎’로 배움을 의미하며 이것은 先人의 경험과 지식을 배우고 習得하는 것이고 ‘敎’의 가장 중심적 의미는 하늘의 眞理라 할 수 있는 ‘道’를 배우는 것이었다.<sup>11)</sup>

이러한 점에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學問觀에 ‘科學’이라는 인식과 방법<sup>12)</sup>이 부분적으로나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식체계를 수립하는 과정을 더욱 중요시 하는 현대적 의미로의 ‘科學’이 우리 韓醫學의 學問觀으로 인식되고 적용되기에는 생소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기존의 韓醫學의 學問觀이 ‘科學’이라는 서양 의학적 사유방식과 충돌되는 것으로 오인 한 것도 사실이다.

韓醫學에서의 ‘學’ 또는 ‘學問’은 본질적인 실체이며 존재론적인 문제이다.

이러한 본질적 실체는 ‘科學’이라는 인식의 方法을 통해 접근되고 연구되어야 하며 이것은 認識論과 方法論의 문제이며 또한 충돌이 아닌 보완이고 확장이

며 발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기인하여 본 연구에서는 韓醫學에서 체계화된 과정으로서의 科學을 새롭게 인식하여 보고 이런 인식의 출발에서 韓醫學을 구체적이며 실질적으로 접근하고 연구할 수 있는 科學的 研究方法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韓醫學의 科學的 研究方法에 있어서도 東洋學으로서의 韓醫學의 特殊性을 감안하여 研究方法을 구체화하고 科學的 客觀化를 위한 普遍的인 研究方法과 함께 포괄적으로 살펴 韓醫學 研究의 科學性을 제고하고자 한다.

## 2. 研究對象과 範圍

### 1) 研究對象

- ① 본 연구는 理論研究와 實驗研究가 아니며 形式研究를 그 연구대상으로 한다.
- ② 形式研究의 내용에 있어서는 韓醫學 研究方法을 그 연구대상으로 한다.
- ③ 韓醫學 研究方法 연구는 形式的 研究方法과 內在的 研究方法을 그 연구대상으로 한다.
- ④ 形式的 研究方法은 論理的인 接近法과 推論方法을 그 연구대상으로 한다.
- ⑤ 內在的 研究方法은 解釋과 因果關係의 內的 理解를 그 연구대상으로 한다.

### 2) 研究範圍

- ① 文獻  
韓醫學 研究方法 연구를 위하여 科學, 論理學, 韓醫學 原典(黃帝內經 素問·靈樞, 醫學入門), 儒學 經典(老子, 大學), 韓醫學 관련 서적과 논문 등 文獻, 韓醫學 研究方法 관련 서적과 논문 등 文獻, 西洋醫學 研究方法 관련 文獻, 中醫學 研究方法 관련 서적과 논문 등 文獻, 東洋哲學 관련 서적과 논문 등 文獻, 人文科學 研究方法 관련 서적과 논문 등 文獻과 東西醫學 比較研究 文獻을 범위로 연구하였다.
- ② 內容

9) 각주 (8) 참조.

10) 김광중. 한의학의 연구방법. 동서의학. 대구한의대. 1988. p.10.

11) 김광중. 한의학의 연구방법. 동서의학. 대구한의대. 1988. p.11.

12) 차상원 譯. 大學. 서울. 학원출판사. 1993. pp.41-54.  
格物致知 : 사물의 이치를 아는 것.  
窮理 : 사물의 이치를 알기 위해 분석하는 것.

- 韓醫學 研究方法에 있어서 韓醫學의 普遍性和 特殊性 도출을 위하여 韓醫學의 人文科學의 特性和 自然科學의 特성을 범위로 한다.

- 韓醫學 研究方法의 形式的 研究方法是 演繹推理와 歸納推理의 形式的 論理 接近과 그 推論方法을 범위로 한다.

- 韓醫學 研究方法의 內在의 研究方法是 韓醫學의 解釋의 理解와 因果關係를 범위로 한다.

③ 用語의 意味

- 科學：자연과학의 狹義의 의미인 물질의 사실에 대한 관찰과 실험 등의 재현가능성에 科學의 의미를 한정하지 않고 인간은 물론이고 인간과 관련된 문화까지 포함된 모든 지식의 체계화 또는 그 과정으로 그 의미를 확대하여 廣義의으로 사용한다.

- 人文科學：인간의 정신과 문화인 文史哲를 통해 인간을 해석하여 이해하는 지식과 그 과정으로 한 의학의 特殊性에 그 의미를 사용한다.

- 自然科學：인간의 정신과 그것의 產物을 제외한 모든 물질에 대하여 관찰과 실험 및 검증을 통해 얻어진 객관적 사실을 일반화된 법칙으로 정립하는 지식과 그 과정으로 그 의미를 사용한다.

- 推論·推理：언어와 문자라는 상징체계로 이루어진 특정한 文句나 그러한 文句 집합의 귀납적 또는 연역적 논리구조나 그 방법으로, 사실이나 주장을 통하여 논리적으로 결과에 이르는 방식으로 그 의미를 사용한다.

- 普遍性：관찰과 실험 및 검증을 통해 얻어진 객관화된 사실과 그 기준에 의해 설정된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자연과학적 특성을 가진 내용과 범위 및 방식으로 그 의미를 사용한다.

- 特殊性：자연과학의 일반화된 보편성으로 평가될 수 없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한의학의 인문학적 특성을 가진 내용과 범위 및 방식으로 그 의미를 사용한다.

- 形式：韓醫學 研究方法에 있어서 내용의 이해가 아닌 연구대상의 논리구조나 접근방법의 외형적 영역을 그 의미로 사용한다.

- 內在的：韓醫學 研究方法에 있어서 연구대상의 解釋과 대상 間 또는 대상 내부의 因果關係 규명을

위한 실질적 내용 이해의 내적 영역으로 그 의미를 사용한다.

### 3. 研究方法

#### 1) 記述方法

- ① 科學의 概念整理를 통하여 韓醫學도 科學의 對象임을 규명한다.
- ② 科學의 對象인 韓醫學의 科學的 研究方法의 필요성을 인식한다.
- ③ 韓醫學의 特성을 통하여 韓醫學의 自然科學的인 普遍性和 人文科學的인 特殊性으로 研究의 分析틀을 설정한다.
- ④ 普遍性和 特殊性의 分析틀을 이용하여 韓醫學 研究方法을 普遍的 研究方法과 特殊한 研究方法으로 구분한다.
- ⑤ 韓醫學의 普遍的 研究方法是 自然科學的 研究方法으로 高찰하고 特殊한 研究方法是 人文科學的 研究方法으로 高찰한다.
- ⑥ 韓醫學의 研究方法을 形式的 研究方法과 內在的 研究方法으로 구분한다.
- ⑦ 韓醫學의 形式的 研究方法是 論理的인 推論方法과 接近方法으로 高찰하고 內在的 研究方法是 解釋과 因果關係의 內在的 理解方法으로 高찰한다.

#### 2) 型式方法

- ① 본 논문은 표지와 본문 및 부록으로 구성된다.
- ② 본문은 차례, 영문초록, 본문내용, 참고문헌으로 구성된다.
- ③ 본문내용은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된다.
- ④ 본문형식은 장, 절, 항 등으로 하며 사용된 記號는 1, 1), ①이며 사용된 符號는, 인용문헌과 인용편은 나열하고, 腳註는 '1), 2), 3)·····'의 일련번호로 표시하였다.
- ⑤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인용문헌 및 인용구에 대한 설명과 원문은 腳註로 처리하였다.

- ⑥ 본문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사용하였고 본문 내용 중에 예시)로 표시하였다.
- ⑦ 본문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부록에 ‘한의학 형식구조’를 표로 정리하였다.
- ⑧ 강조해야 할 文句가 節인 경우에는 “ ”로 강조하였고 句 인 경우에는 ‘ ’로 강조하였다.
- ⑨ 참고문헌은 학술논문과 단행본 등으로 나누어 인용편 제목의 가, 나, 다 순으로 정리하였으며, 서지항 뒤에는 인용페이지 수를 순서대로 기재하고 단일면을 먼저 연속면은 나중에 기재하였다.
- ⑩ 기타 논문규격 및 본문형식은 대한한의학발전학회 논문집 투고규정(2008년 5월23일 개정)에 의하여 작성되었다.

#### 4. 先行研究 考察

##### 1) 『한의학 방법론에 관한 고찰』

(최환수, 대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이 논문에서는 과학을, 첫째 경험적 지식, 둘째 이론적 지식, 셋째 철학적이고 세계관적 해석<sup>13)</sup>으로 정의하고 한의학 또한 과학이라는 범주 안에서 다루어져야 하며 과학에 이르는 방법으로 지식을 효과적으로 습득할 수 있기 위해서 어떻게 지식 추구를 해야 하는지의 인식과정과 어떠한 보조 수단을 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행동지침인 행동과정<sup>14)</sup>인 방법론으로 보고 그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한의학의 특수한 상황에 따른 특수한 연구 방법을 감안하여 수용하지 않고 진행되는 한의학에 대한 비과학적 연구로 인해 한의학에 대한 평가가 잘못될 수 있다<sup>15)</sup>는 문제점도 제기하면서, 한의학의 방법은 對生的 지식, 즉 자연에 대한 나의 삶과 연계된 자연을 알고자 하는 지식의 추구였기 때문에 자연

과 나를 전체적이고 종합적으로 관찰하였으므로 인체에 대해서도 또한 전체적·유기체적·종합적이고 인문주의적인 관점에서 분석<sup>16)</sup>하여야 한다고 말한다.

방법론에 있어서도 자연현상에 대한 경험이 관찰로부터 시작하여 관찰된 각각의 자연현상을 구분하고 사유를 통해 분석하고 판단하여 실천의 검증을 통해 지식을 획득하고 이론을 체계화하는 방법으로, 관찰방법, 분류방법, 사유방법, 논리방법<sup>17)18)</sup> 등으로 구분하는 'Albert Menne'<sup>19)</sup>의 방법을 이용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저자는 관찰법으로 『司外揣內』<sup>20)</sup>를 논하였는데, 『內經 靈樞』 「逆順肥瘦」 「將審察于物」<sup>21)</sup>에서 자연현상에 대한 관찰을 통해 의학적 지식을 얻을 수 있음을 암시하였으며 『內經 靈樞』 「逆順肥瘦」<sup>22)</sup>를 통해서 사물의 밖에 있는 표상을 관찰하여 안에 존재하는 변화를 헤아리고 추측하고 분석하는 방법, 내부를 관찰하여 밖의 현상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자연과 인간에 대한 한의학의 특수한 관찰방법을 제시하였다.

16) 최환수. 한의학 방법론에 관한 고찰. 대전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9. p.50.

17) Albert Menne 著. 김보현 譯. 방법론. 서울. 서광사. 1996. pp.167-194.

18) 최환수. 한의학 방법론에 관한 고찰. 대전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9. p.50.

19) Albert Menne 著. 김보현 譯. 방법론. 서울. 서광사. 1996. p.19.

20) 최환수. 한의학 방법론에 관한 고찰. 대전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9. pp.51-61.

21) 영추연구집성간행위원회 編著. 영추연구집성 中券. 익산. 영추연구집성간행위원회. 2006. p.904.

“黃帝 問于岐伯 曰余聞鍼道于夫子 衆多畢悉矣 夫子之道應若失 而據未有堅然者也 夫子之問學 熟乎 將審察于物而心生之乎”

“黃帝께서 岐伯에게 물어 말씀하셨다. “내가 夫子에게서 鍼道를 들었는데 衆多하고 畢悉합니다. 夫子의 道는 應함이 화살과 같아서 根據함에 堅然하게 풀리지 아니한 것이 없으니, 夫子의 學問이 成熟하여서 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物을 審察하여 마음으로 부터 發生한 것 입니까?”

22) 영추연구집성간행위원회 編著. 영추연구집성 中券. 익산. 영추연구집성간행위원회. 2006. p.1016.

“故遠者司外揣內 近者司內揣外 是謂陰陽之極 天地之蓋”  
“그러므로 遠은 外를 말아서 內를 헤아리는 것이고, 近은 內를 말아서 外를 헤아리는 것이니 이를 陰陽의 極이오 天地의 덮개라 합니다.”

13) 최환수. 한의학 방법론에 관한 고찰. 대전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9. pp.17-45.

14) 최환수. 한의학 방법론에 관한 고찰. 대전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9. p.11.

15) 최환수. 한의학 방법론에 관한 고찰. 대전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9. p.46.

그러나 관찰방법은 지나치게 거시적이어서 미시적인 세계에 대한 관찰내용이 부족하고 관찰결과의 묘사가 분명치 않아 적중성이 떨어지고 모호성이 크며 주관적 억측성의 개입가능성이 크며 개인경험에 가깝다고 지적하였다.<sup>23)</sup>

관찰된 것들을 인식하는 방법으로 제시된 분류법으로 ‘援物比類’<sup>24)</sup>는 사물을 구별하고 분류, 확정하여 대상 간의 공통점(同類比較法)과 차이점(異類比較法)을 인식하는 비교를 근거로 사물을 인식하는 방법이다.<sup>26)</sup>

이러한 ‘援物比類’는 形象思惟를 통하여 연구대상과 이미 알고 있는 대상이 어떤 면에서 유사성이나 공통점을 가지며 이것에 근거하여 또 다른 측면에서도 유사성과 공통점을 지닐 수 있고 이로부터 연구대상의 어떤 한 면에서의 性狀을 도출해 내는 방법으로 보여 진다.

다음으로 사고의 틀이라 할 수 있는 사유방법으로 ‘形象思惟’<sup>27)</sup>은 외부의 관찰 가능한 表象으로 분석, 종합, 추상하고 개괄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논리방법으로, 한의학에서는 형식논리를 사용하지 않고<sup>29)</sup> ‘陰陽’ 등을 논리적 인식의 도구로 삼아 相反과 造化의 변증논리를 주로 사용하였는데 이

러한 경우는 ‘寒熱’, ‘虛實’과 ‘表裏’ 등에서도 나타난다.

『한의학 방법론에 관한 고찰』에서는 한의학의 연구방법론을 일정한 분야로 설정하고 ‘內經’이라는 原典을 기반으로 삼은 것과 논리의 방식이 단계적이고 구체적인 측면에서는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연구방법의 형식적 측면을 간과하였고 관찰한 후 분류하고 그것을 思惟하는 논리적 사유의 과정을 단계적으로 구체화시킨 것으로 기존 한의학 연구방법의 특수한 내적 측면을 보여주었다.

## 2) 『신 동양의학개론』

(여봉천 著, 조혜인 譯, 서울, 일증사, 1994)

여기에서는 고대 동양의학의 연구방법을 단순히 열거하였는데, ‘司外揣內’(外를 관찰하여 內를 추측한다.), ‘直覺頓悟’(직관적으로 깨닫는다.), ‘比類取象’(비유하여 증상을 나타낸다.), ‘候閱觀察’(증후를 관찰한다.), ‘以反求正’(반면적인 것에서 정면적인 것을 알아낸다.), ‘從其類序’(종류별 순서에 따라 정리한다.), ‘內景返觀’(반사적인 방법으로 내부를 관찰한다.) 및 ‘文獻考據’(문헌근거를 고증한다.)를 보여주고 있다.<sup>30)</sup>

그러나 연구방법에 대한 나열로 형식적 연구방법에 대하여는 논하지 못하였고 내적 이해를 위한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 3) 「한의학의 연구방법」

(김광중, 『동서의학』, 대구한의대, 1998)

이 논문에서는 한의학 연구방법의 근간을 東洋學의 學問觀에 淵源을 찾으면서 經學이 중국의 전국시대 말기에 사상의 기초를 이룩하고 漢代에 확립되어 전국시대 사상활동의 하나로 출발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한의학 또한 그러한 역사적, 시대적 배경에 따라 형성되고 발전되었으며 原典의 표현구조 또한 經學과 유사하다며 한의학 연구방법에 있어서도 한의학 原典연구의 經學的 연구를 주장하였다.<sup>31)</sup>

30) 여봉천 著, 조혜인 譯, 신동양의학개론, 서울, 일증사, 1994, p.2.

23) 최환수. 한의학 방법론에 관한 고찰. 대전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9. p.60.

24) 최환수. 한의학 방법론에 관한 고찰. 대전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9. pp.61-69.

25) 소문연구집성간행위원회 編著, 소문연구집성 7권, 익산, 소문연구집성간행위원회, 2001. p.229.

“夫聖人之治病 循法守度 援物比類 化之冥冥 循上及下 何必守經”

“성인께서 병을 치료할 때는 법도를 준수하고 다른 사물의 이치를 취하여 비교 유추하여 신묘한 조화가 일어나지 않고 위에서부터 아래에 까지 미치지 어찌 반드시 외길만을 지키겠는가.”

26) 최환수. 한의학 방법론에 관한 고찰. 대전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9. p.61.

27) 최환수. 한의학 방법론에 관한 고찰. 대전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9. pp.76-83.

28) 소문연구집성간행위원회 編著, 소문연구집성 8권, 익산, 소문연구집성간행위원회, 2001. p.45.

“天地陰陽者 不以數推 以象之謂也”

“天地的 陰陽은 數로서는 헤아릴 수 없고 그 象으로써 말하는 것입니다.”

29) 최환수. 한의학 방법론에 관한 고찰. 대전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9. p.70.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한의학 연구방법으로 한의학 原典 연구의 필요성과 근거를 제시한 것은 주요하였으나 原典 연구에 있어서 한의학 原典이 어떠한 논리구조로 구성되었는지 분석할 수 있는 형식적 논리구조나 어떤 사고의 틀을 이용하여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등 구체적인 연구방법이 제시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

크게 위의 세 가지 선행연구의 경우를 통해 韓醫學 研究方法에 대한 인식의 부족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방법론이 제시되지 못한 점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인 연구방법의 경우에 연구방법의 주된 내용이 되는 형식적 연구방법의 논리구조나 추론방법의 연구가 아닌 한의학을 구성하고 있는 한의학 원전, 특정 이론 등의 내적 이해를 위한 방법에 한정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한의학이 과학으로서의 객관적인 영역으로 평가될 수 있는 보편적인 연구방법이 다루어지지 못하여 포괄적인 연구방법의 인식과 방법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한의학의 科學性에 대한 비판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첫째는 실험과 검증방법에 따른 재현 가능한 실증성에 대한 비판이며, 둘째는 사물의 법칙과 이치에 관한 가치중립성에 대한 비판이라 할 수 있다.

실증성의 경우, 현대의학이 물질적 현상에 대하여 해부·조직학(Anatomico-Histological), 생물학(Biology), 생화학(Biochemistry) 등을 통한 환원주의적 방식으로 사고하여 통계학(Statistics)을 통하여 계량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의학은 그러한 실증적 방법을 통한 객관적 사실에 도달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價値中立性의 경우, 한의학을 철학이며 종교라고 하는 주장은 기실 적절한 표현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러한 주장에는 과학의 연구대상이 객관화 할 수 있는 물질적인 사실의 영역에 국한된다는 전제를 두고, 한의학에 내재되어 있는 동양철학적 思维방식과 ‘道學說’, ‘氣學說’, ‘陰陽五行說’ 등이 실제이론으로 구성되어 있고 물질적 사실이 아닌 價値, 道德, 情神까지도 연구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비과학적이라고 비판하는 것이다.

## II. 本論

### 1. 韓醫學과 科學

“한의학은 비과학적이다.”, “한의학은 효과판정이 애매하다.”, “한약에는 실증적인 뒷받침이 없다.”<sup>32)</sup> 등 한의학에 대해서 의문이나 비판을 가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게 사실이며 때로는 “한의학은 과학이 아니라 철학이며 종교이다.”<sup>33)</sup>라고 하면서 한의학의 醫學科學性을 극단적으로 비판하기까지 하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한의학은 오래 전 고대인이 자연에 대한 관찰을 통해 人法(사람의 형성과 그 사는 이치)·地法(땅의 형성과 그 변화 이치)·天道(하늘의 형성과 그 변화 이치)가 自然에 귀속된다는 자연에 대한 개념<sup>34)</sup>과 인식이 생긴 이래로 사람의 형성과 그 변화의 이치가 자연의 형성과 그 변화의 이치에 相應한다는 “天人合一”<sup>35)36)</sup>의 사상과 자연과 인간(인체)에 대한 因果

31) 김광중. 한의학의 연구방법. 동서의학. 대구한의대. 1988. p.10.  
 32) 김종열, 김우중 共著. 동서의학 비교연구. 서울. 계축문화사. 1994. p.26.  
 33) 전세일. 동양의학의 과학적 연구. 제4회 한의학연구원 학술세미나. 한의학연구원. 1998. p.115.

34) 노자 著. 장기근 譯. 노자. 서울. 삼성출판사. 1983. p.84. 제25장 象元: “人法地 地法天 天法道 道法自然”  
 “사람은 땅에 따르고, 땅은 하늘에 따르고, 하늘은 道에 따르고, 道는 自然에 따른다.”  
 35) 소문연구집성간행위원회 編著. 소문연구집성 1권. 익산. 소문연구집성간행위원회. 2001. p.151.  
 “此皆陰陽表裏 內外雌雄相應也 故以應天之陰陽也”  
 “이 모든 것은 陰陽·表裏·內外·雌雄이 서로 주고받는 것이므로 天의 陰陽과 相應하는 것입니다”  
 36) 영추연구집성간행위원회 編著. 영추연구집성 下券. 익산. 영추연구집성간행위원회. 2006. p.1512.  
 “人之肢節以應天地 奈何... 此人與天地相應者也”  
 “黃帝께서 伯高에게 물으시기를, 원컨대 사람의 肢節이

및 상관관계의 철학적 인식의 바탕에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자연과 인간 및 그 변화양상에 대한 철학적 인식은, 자연의 이치인 道를 통해 天文·地理·人事가 이루어진다는 “道學說”<sup>37)</sup>, 사람이 天地의 氣로 태어나며 이러한 氣는 사람의 形을 생기게 하고 때로는 內因의 七情傷과 外因의 外邪로 氣가 상하면 병이 생기는 등 氣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氣學說”<sup>38)39)40)41)</sup>과 자연과 인간을 陰陽으로 구분하고

天地에 相應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相應합니까?…… 이것이 사람과 天地가 相應하는 것입니다.”

37) 소문연구집성간행위원회 編著. 소문연구집성 8권. 익산. 소문연구집성간행위원회. 2001. p.129.

“夫道者는 上知天文하고 下知地理하고 中知人事라야 可以長久라하니 此之謂也”

“무릇 道를 아는 사람은 天文을 알고 아래로는 地理를 알며 그 속에서 人事를 알아야 오래도록 유지될 수 있다.”고 하였으니,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38) 소문연구집성간행위원회 編著. 소문연구집성 3권. 익산. 소문연구집성간행위원회. 2001. p.143.

氣의 萬物 構成性

“天覆地載 萬物悉備 莫貴於人 人以天地之氣生 四時之法成”

“하늘이 덮고 땅이 싹고 있는 가운데에 萬물이 모두 갖추어 있으나 사람보다 귀한 것은 없으니 사람은 天地의 氣로 태어나서 四時의 法則으로 살아간다.”

39) 소문연구집성간행위원회 編著. 소문연구집성 8권. 익산. 소문연구집성간행위원회. 2001. p.117.

氣의 人體生命活動性

“上下之位 氣交之中 人之居也 故曰天樞之上 天氣主之 天樞 之下 地氣主之 氣交之分 人氣從之 萬物由之 此之謂也.”

“上·下位의 氣가 交流하는 가운데에 사람이 居處합니다. 그러므로 天樞의 以上은 天氣가, 天樞의 以下는 地氣가 주재하며, 氣交하는 부분에 人氣와 萬물이 따른다는 것을 말합니다.”

40) 소문연구집성간행위원회 編著. 소문연구집성 1권. 익산. 소문연구집성간행위원회. 2001. p.186.

氣의 臟腑 生理機能性

“水爲陰 火爲陽 陽爲氣 陰爲味 味歸形 形歸氣 氣歸精 精歸化 精食氣 形食味 化生精 氣生形 味傷形 氣傷精 精化爲氣”

“水是 陰이 되고 火는 陽이 되는 것이니 陽은 氣가 되고 陰은 味가 되는 것이다. 味는 形으로 돌아가고 形은 氣로 돌아가며 氣는 精으로 돌아가고 精은 化로 돌아가는 것이니 精은 氣를 먹고 形은 味를 먹으며 化는 精을 생기게 하고 氣는 形을 생기게 하는 것이다.”

41) 소문연구집성간행위원회 編著. 소문연구집성 4권. 익산. 소문연구집성간행위원회. 2001. p.248.

氣의 病理機能性

“百病生於氣也 怒則氣上 喜則氣緩 悲則氣消 恐則氣下 寒

그것의 相對性과 消長變化와 木·火·土·金·水의 다섯 가지 분류를 통한 相互生·克·乘·侮의 運行을 통해 사고하고 분석하는 “陰陽五行說” 및 氣象과 氣候가 五運六氣의 변화로 인한 것이라는 “五運六氣說” 등 자연과 인간법칙에 대한 기초이론을 형성시켰다.

이러한 기초이론은 天人觀, 生命觀, 疾病觀, 養生觀과 治療觀으로 정리되고 生理·病理·臟腑·經絡으로 구체화 되고 세분화 되어 “內經”과 같은 原典을 통해 수천 년 동안 고스란히 계승되었고 거기에서 수많은 醫家들의 연구와 임상경험이 兼修並蓄<sup>42)</sup>式으로 蓄積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은 철학이라는 독특한 성립배경과 구조 및 이론을 가진 한의학은 자연철학적 사유의 틀 속에서 영원불변의 原典을 기반으로 추상적인 이론과 辨證을 임상경험의 辨證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론적-一貫性(氣와 陰陽五行)이나 논리적 단계(관찰-진단-변증-치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비과학적이라는 비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한의학의 역사적인 形成背景과 原典에 수록된 기초이론의 연역적 구조의 恒久性(수정불변<sup>43)</sup>)<sup>44)</sup>에 대한 문화와 인문과학적 측면의 沒理解, 의학에서의 철학적 구조의 필요성을 간과하고 의학을 단순한 귀납적 경험의 결과<sup>45)</sup>로만 보는 자연과학적인 측면에 치중한 사고와 그 시각이 주된 이유로 생각된다.

이에 본 절에서는 과학에 대한 보다 분명한 인식을

則氣收 炆則氣泄 驚則氣亂 勞則氣耗 思則氣結 九氣不同 何病之生”

“모든 病이 氣에서 생기니 ‘怒’하면 氣上하고, ‘喜’하면 氣緩하고, ‘悲’하면 氣消하고, ‘恐’하면 氣下하고, ‘寒’하면 氣收하고, ‘炆’하면 氣泄하고, ‘驚’하면 氣亂하게, ‘勞’하면 氣耗하고, ‘思’하면 氣結하여 九氣가 같지 않으니 어떤 병증이 생깁니까?”

42) 여봉천 著. 조혜인 譯. 신동양의학개론. 서울. 일지사. 1994. p.14.

43) Walter Theimer 著. 김삼룡 譯. 과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홍익재. 1992. p.22.

44) 허남진. 한의학의 과학성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과학사상. 1993. 6. p.239.

45) 허남진. 한의학의 과학성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과학사상. 1993. 6. p.240.

통하여 한의학에 대한 과학적 비판론을 반박하고 한의학의 과학적 접근과 그에 따른 한의학의 과학적 연구방법을 고찰해 보고자하며 그 전제로 과학의 특성, 과학의 구분, 한의학의 과학적 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科學의 特性

과학은 지식체계의 結果 또는 지식체계화 過程이나 그 方法<sup>46)</sup> 자체를 이르는 말로 일련의 ‘體系性’<sup>47)</sup>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과학의 체계성은 단순한 사실의 축적이나 당위적인 明視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크게 세 가지의 과학적 특성을 갖추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과학이라고 말할 수 있다.

첫째, 일련의 과정이나 결과물의 재현가능성이며, 둘째로 일련의 과정과 결과물 간의 인과관계이고, 셋째는 일련의 과정과 결과물의 논리구조에 따른 논리 체계이다.<sup>48)</sup>

#### ① 再現可能性

일련의 과정이나 결과물의 재현가능성<sup>49)</sup>은 객관적인 것이며, 객관적인 것은 일반적인 법칙<sup>50)</sup>으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대상이 재현가능한 적극적 탐구방법<sup>51)</sup>인 ‘실험’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그 실험의 대상은 자연에 자연법적으로 존재하는 對物的 사물의 사실에 국한되며 살아있는 생물 또한 對物的 사실로 간주하여 가설을 통한 실험의 설계와 실험을 통한 가설의 검증을 통해 그 재현가능성은 확립되며 계량적인 수량이나 환원적 용어에 의한 命題로 표현된다.

여기에서 價値의 영역, 즉 인간의 정신과 문화 및 도덕 등은 재현 가능한 실험의 영역에서 제외된다. 그것은 재현가능성이 事實의 영역에 국한하여 價値에 대해서는 價値中立의인 입장이기 때문이다.<sup>52)</sup>

이러한 이유로 과학은 연구대상이나 결과에 대한 표현에 따라 자연과학과 인문과학으로 구분되며 이러한 구분에 있어서 과학의 특징은 體系성과 過程性만을 유지하고 있다.

#### ② 因果關係

일련의 과정과 결과물 간의 인과관계는 원인에 따른 결과의 도출관계로, 과학에서 인과성에 대한 개념은 다소 流動的이다.

뉴턴의 경우에는 필연성의 개념(idea of necessity)에 따라 결과에 대한 원인은 반드시 존재하며 이 원인과 결과는 시간의 고리로 연결된다는 개념이다.<sup>53)</sup>

Hume의 경우는 필연적 인과관계를 심리적 결정에 불과하며 반복적인 상관성(frequent correlation)을 인과성으로 보고 인과관계에서 확률적 개념을 도입하였다.<sup>54)</sup>

Mill의 경우는 인과관계에 대하여, 원인은 시간적으로 앞서야 하고(precedance of cause) 변동이 서로 관계가 있어야 하며 다른 가능한 설명이 배제되어야 한다며 인과관계의 기준을 제시하였다.<sup>55)</sup>

이처럼 과학에서의 인과관계는 다양한 수준<sup>56)</sup>을

52) 여영서. 과학이란 무엇인가 vs. 과학은 얼마나. 과학철학. 2006. 9(1) p.207.

53) 신영수 외 編著. 의학연구방법론.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7. p.14.

54) 신영수 외 編著. 의학연구방법론.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7. p.15.

55) 신영수 외 編著. 의학연구방법론.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7. p.15.

56) 신영수 외 編著. 의학연구방법론.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7. pp.20-21.

필요원인(necessary cause) : 결핵균과 결핵의 발병 관계처럼 어떤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반드시 원인이 되는 요인이 있는 경우

충분원인(sufficient cause) : 어떤 요인이 있으면 반드시 그 결과가 초래되지만 이외에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 경우

필요충분원인 : 원인이 있는 경우에 반드시 결과가 초래되고 그 결과는 그 원인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경우

비필요, 비충분원인 : 원인은 결과를 초래하는 데 분명히

46) 신영수 외 編著. 의학연구방법론.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7. p.10.

47) Walter Theimer 著. 김삼룡 譯. 과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홍익제. 1992. p.19.

48) Walter Theimer 著. 김삼룡 譯. 과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홍익제. 1992. p.19.

49) Walter Theimer 著. 김삼룡 譯. 과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홍익제. 1992. pp.25-26.

50) 신영수 외 編著. 의학연구방법론.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7. p.38.

51) 장희의. 삶과 인생명. 서울. 솔출판사. p.26.

가지며 그러한 다양한 수준에서도 반드시 존재하는 것은 원인과 결과 간의 연관성이다.

의학에서의 인과관계 개념은 순수자연과학에서 보다 불확실하고 결과를 초래하는 원인요인이 광범위하다. 이런 점에서 한의학이 다양한 辨證基準<sup>57)</sup>의 辨證過程을 통해 높은 수준과 단일한 단계의 인과관계를 설정한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있다. 물론 다양한 辨證方法 상의 기준<sup>58)</sup>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의학에서의 인과관계 결정은 단일한 결정이다.

③ 論理體系

과학은 근본적으로 합리적인 활동이며 과학적 설명은 의미가 있어야만 하고 논리적인 이유에 근거해야 한다.<sup>59)</sup>

이러한 합리적인 논리는 形式的 논리이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命題推論의 논리이며, 둘째는 推論의 接近의 논리로, 둘 다 귀납과 연역적 방법을 사용한다.

命題推論의 논리의 경우는 언어적 측면의 귀납과 연역의 형식논리를 말하는 것으로 일정한 개별적 命題 간의 합리적인 논리성을 말한다.

推論의 接近의 논리는 일종의 접근법의 논리체계로, 관찰된 자료로부터 시작하여 관찰된 대상 간의 관련성을 설명하는 귀납적 방법과 일반적 법칙으로부터 시작하여 그것을 특정 상황에 적용시키는 연역적 방법이 있다.<sup>60)</sup>

2) 自然科學과 人文科學

관여하지만 필요원인도 충분원인도 아닌 경우로 의학과 관련된 인과관계의 경우가 많다.

- 57) 八綱辨證(表裏, 寒熱, 虛實, 陰陽)  
臟腑辨證(心病 虛症과 實證, 肺病 虛症과 實證, 胃病 虛症과 實證, 小·大腸 虛·實·熱·寒證, 肝病 虛症과 實證, 膽病辨證, 腎病辨證, 膀胱 實熱·虛寒證)  
衛氣營血辨證(衛分證, 氣分證, 營分證, 血分證)  
氣血津液辨證(氣虛證, 氣陷證, 氣滯證, 氣逆證, 血虛證, 血瘀證, 血熱證, 津液不足, 津液停積)
- 58) 한국전통연구소 기초의학연구부. 한의학개설. 서울. 영림사. 2003. pp.167-197.  
각주 (57) 참조.
- 59) 신영수 외 編著. 의학연구방법론.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7. p.36.
- 60) 신영수 외 編著. 의학연구방법론.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7. p.36.

지식체계의 結果 또는 지식체계화 過程이나 그 方法<sup>61)</sup>으로 정의될 수 있는 과학은 일련의 과정이나 결과물의 재현가능성<sup>62)</sup>과 일련의 과정과 결과물 간의 인과성 및 논리체계를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과학은 연구대상에 대한 보다 정확한 관찰과 그 대상 내부에 감추어진 인과관계를 논리적 체계를 갖춘 방법으로 표현하고 분석하며 해석함으로써 대상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통해 일반화하고 객관화하는 것이다.

西洋의 경우, 14세기 남부유럽에서 시작된 르네상스(Renaissance)의 인문주의(Humanism)운동이 서유럽의 對物的 지식에 대한 관심을 유발시켰다.

이러한 새로운 관심은 급기야 자연탐구에 대한 새로운 방법과 방법론의 발견으로 이어져 인문과학으로부터 근대 자연과학을 분리시키게 되었다.

인문과학으로부터 분리 되어 새롭게 개척된 자연과학은 발전을 거듭하면서 17세기에 들어서 산업혁명을 이루어 냈고 현재까지 그 과학적 합리성과 눈부신 성과를 이루고 있다.<sup>63)</sup>

고대로부터 현재까지 이어져오는 인문과학(human science)<sup>64)</sup>과 14세기 이후 새롭게 등장한 자연과학 모두는 과학적 특성인 재현가능성, 인과관계, 논리체계 또는 지식의 체계와 과정에서 일관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과학의 범주에 속한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인문과학과 자연과학은 여러 가지 면에서 분명한 차이와 구별을 보인다. 즉, 연구대상과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에서 있어서 인문과학과 자연과학은 분명한 차이와 구별<sup>65)</sup>이 있으며 이러한 차이와

- 61) 각주 (44) 참조.
- 62) 각주 (47) 참조.
- 63) 장희익. 삶과 온생명. 서울. 솔출판사. 1999. pp.21-27.
- 64) 장희익. 삶과 온생명. 서울. 솔출판사. 1999. pp.21-27.  
人文學은 고대 희랍의 모든 학예를 상징하는 뮤즈(Muse)에는 아홉 가지의 분야가 있었는데, 서사시(epic), 서정시(lyric), 희극(comedy), 비극(tragedy), 수사학(rhetoric), 무용(dance), 음악(music), 역사학(history), 천문학(astronomy)으로 키케로에 의해서 이러한 내용을 '인문학(Humanitas)라 명명했고 이것은 고대 희랍의 파이데이아(paideia)의 번역어로 일반학 또는 옹고 그른 것을 가려낼 수 있는 비판적 학문을 의미한다.
- 65) Walter Theimer 著. 김삼룡 譯. 과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홍익재. 1992. p.23.

구별은 다양한 학문분야를 분류하는 방법으로 쓰이고, 때로는 그러한 학문 간의 충돌, 보완, 결합을 이루기도 하는데 이러한 학문적 경쟁과 진화는 의학 특히 한의학에서도 격렬하다.<sup>66)</sup>

① 研究對象에 따른 區分

인문과학과 자연과학을 구분하는 연구대상의 차이는, 인문과학의 경우 정신적인 產物이며 자연과학은 자연 그 자체이다.<sup>67)68)</sup>

Husserl의 경우는, 연구대상은 그 내용, 즉 質料에 따라 물질적인 자연<sup>69)</sup>과 동물적인 자연<sup>70)</sup>은 자연과학의 연구대상이며 정신적인 세계<sup>71)</sup>는 인문과학의 연구대상으로 구분하였다.<sup>72)</sup>

즉, 자연과학의 경우, 객관적인 자연으로 대표되는 사물을 그 연구대상으로 하는데 사물에는 생명이 없는 물질적인 사물과 동물과 식물 및 인간의 정신세계

를 제외한 인간의 육체까지 포함된 사물을 말하는 것으로 가치중립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인 실험과 검증을 통해 재현가능성이 있는 대상으로 한정한다.

인문과학의 경우, 인간의 정신적 세계에서 다루어지는 인격적 產物인 인간의 정신, 감정, 도덕, 문화, 역사, 철학 등을 그 연구대상으로 한다.

② 研究目的에 따른 區分

자연, 즉 無生物的 자연 및 인간의 정신과 그 產物을 제외한 생물적 자연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자연과학은 그 대상에서 원인과 결과 간의 인과관계 규명을 통해 이를 재현 가능한 객관화를 그 목적으로 한다. 즉 일반화하고 보편화시키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야.<sup>73)</sup>

이에 반해서 인문과학의 연구목적은, 인간과 인간이 만들어낸 產物을 연구함으로써 그 대상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구체화 및 내용화를 그 연구목적으로 한다.<sup>74)</sup>

이러한 자연과학의 객관화·일반화 및 보편화의 연구목적과 인문과학의 구체화·내용화의 연구목적은 연구대상의 구분에 기인한 것으로 그 연구목적에 위한 연구방법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를 나타낸다.

③ 研究方法에 따른 區分

자연의 현상을 객관화·일반화 및 보편화시키기 위한 자연과학은 관찰과 실험 및 검증이라는 실증주의적인 일원적 방법<sup>75)</sup>을 동원하며 인간의 정신적 產物을 구체화·내용화시키기 위한 인문과학의 해석적 이해 등의 다원주의적 방법<sup>76)</sup>은 그 방법을 위한 논리적 접근과 내부의 논리적 체계(구조)를 가진다. 이러한 논리적 연구방법 또한 자연과학과 인문과학으로 구분되는데,

자연과학의 경우, 많은 사실들의 집합인 경험으로

66) 허남진. 한의학의 과학성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과학사상. 1993. p.235.

“한의학이 의학의 지위를 다시 회복하려면 아니 최소한 의학의 부분으로서라도 성립하려면 서양의학과 같은 과학적 기반 위에서 과학적임을 밝히든지, 아니면 서양의학과 다른 과학적 기반에서 있음을 밝혀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67) 신규현. 인문과학의 특징과 그 연구방법론에 관한 문제. 인문연구.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82. 1. p.249.

68) 東·西洋의 학문적 淵源의 차이에 따른 자연과 인간 및 그 정신의 개념과 시각이 통일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기에서는 인문과학과 자연과학이라는 구별이 西洋學問의 기준에 의한 것이고 그것에 따라 우리의 학문도 상당한 부분이 정립되었기에 ‘정신’과 ‘자연’을 분리·구별하여 사용한다.

69) 신규현. 인문과학의 특징과 그 연구방법론에 관한 문제. 인문연구.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 1982. p.250. 물질적인 자연은 공간적인 延長, 운동을 하거나 변화를 일으키면서 동일한 실체로 존속, 상호간에 인과적인 존재성을 가진다.

70) 신규현. 인문과학의 특징과 그 연구방법론에 관한 문제. 인문연구.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 1982. p.251. 동물적인 자연은 영혼, 신체, 육체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한다.

71) 신규현. 인문과학의 특징과 그 연구방법론에 관한 문제. 인문연구.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 1982. pp.251-252.

정신세계는 인간의 人格產物로 자연의 인과법칙과는 다른 動機誘發의 인과법칙이 지배하며 자율성에 따른 자유가 존재한다.

72) 신규현. 인문과학의 특징과 그 연구방법론에 관한 문제. 인문연구.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 1982. p.250.

73) 신규현. 인문과학의 특징과 그 연구방법론에 관한 문제. 인문연구.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 1982. p.253.

74) 신규현. 인문과학의 특징과 그 연구방법론에 관한 문제. 인문연구.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 1982. p.253.

75) Walter Theimer 著. 김삼룡 譯. 과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홍익재. 1992. p.23.

76) Walter Theimer 著. 김삼룡 譯. 과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홍익재. 1992. p.23.

집약되는 관찰과 실험의 결과에 歸納的으로 接近하는 方法을 취하며 그 관찰과 실험 및 검증의 내용 또한 귀납적인 命題推論 方法이라는 논리적 구조를 가짐으로써 연구 자체의 논리체계를 갖추게 된다.

그러나 인문과학의 경우, 當爲的으로 정립된 인간의 정신적 產物에 대하여 해석을 위해 演繹的 接近方法이 취해지며 그러한 결과로 얻어진 理解는 演繹的인 命題推論의 方法으로 논리적 구조를 가지며 이 또한 연구 자체의 논리체계를 갖추게 된다.

물론, 자연과학에서도 인문과학적인 해석적 이해를 위한 演繹적 추론과 접근이 사용되고 인문과학에서도 자연과학적인 귀납적 추론과 접근이 사용되는 경우를 볼 수 있는 것이지만 구분의 특성은 이렇다.

### 3) 韓醫學의 科學性

지식체계의 結果 또는 지식체계화 過程이나 그 方法으로 정의되는 과학은 재현가능성과 인과관계 및 논리구조를 통한 체계를 그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과학의 범주에 한의학이 속하기 위해서는 한의학의 內在的인 과학성과 形式的인 과학성이 요구된다.

內的 과학성은 재현가능성(또는 해석을 위한 이해)과 인과관계를 연구할 수 있는 의학적 기초이론의 성립과 그러한 기초이론이 診斷, 辨證, 治療의 과정에서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는 논리적 일관성이다.

이러한 內的 과학성은 한의학이 이미 갖추고 있는 과학성으로 再論의 여지가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한의학의 形式的 과학성의 경우는 아직 외부의 많은 비판과 내부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形式的 과학성은 과학적인 研究方法을 의미하며, 이것은 한의학 용어의 명확성과 용어의 분류에 따른 계통성을 밝히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연구목적에 따른 연구대상의 선정과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한 논리적 체계화의 방법과 과정이다. 하지만 한의학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研究方法의 不在라기 보다는 混亂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의학은 東洋의 전통적인 醫科學으로서 문화적인 價値의 측면과 객관적 자연이라는 사실의 측면이 하나로 융합되어 있고 이것이 내부에서 현대의학의 자

연과학적인 연구방법으로 접근되는 시도와 기존의 전통적인 연구방법으로의 접근이 충돌하고 경쟁하면서 연구방법 자체의 포괄적인 인식과 적용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 2. 韓醫學의 普遍性과 特殊性

한의학의 과학적인 연구방법을 위해서는 한의학에 포함된 특성을 일반적 기준으로 요약해야 하는데, 이것이 분석의 틀로 작용하여 한의학 연구방법을 구체화시킬 수 있다.

앞서 既述한 바와 같이, 한의학은 醫科學으로서 자연과학적 대상과 목적 및 방법의 영역이 있다.

자연과학적인 연구대상의 경우, 生理的인 현상과 질병발생의 病理 및 治療의 기전에 있어서 한의학적 이론과 상충되는 점이 있기는 하지만, 인체에 대한 해부학적 지식과 생물학적으로 인체를 구성하는 물질과 그 구성형태, 질병을 유발하는 내·외적인 물질의 생화학적 작용과 물질 이외의 심리적 현상의 생화학적 작용, 이것을 치료하는 약물의 화학적 성분과 그러한 약물의 단일 또는 복합적 형태가 가지는 효과성이 연구대상이 된다.

또한 방법에 있어서도 연구대상을 관찰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가설을 설정하여 인위적이고 제한된 조작을 통한 실험과 그것의 검증을 통하여 인과관계를 분석하게 된다.

연구목적의 경우에도, 실험과 검증의 결과를 가지고 객관화하고 일반화하여 법칙을 정립하고자 하는 자연과학적 목적을 가진다.

이러한 한의학의 자연과학적 영역은 자연과학과 현대의학에 대하여 일반적인 普遍性을 가지며 이것은 한의학 연구방법의 중요한 분석틀로 사용될 수 있다.

다음으로, 한의학은 오랜 역사를 가진 전통적 학문으로 그 형성배경과 구성이론에는 동양학적인 문화, 역사, 철학이 복합적으로 담겨져 있다.

철학적인 경우, 동양철학 그 중에서도 儒學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았다.

한의학에서의 동양철학은 ‘天人合一’의 自然觀을

밀거름으로 하여 ‘道’, ‘氣’, ‘陰陽五行’ 등의 형성이론을 성립시켰으며 ‘儒醫’<sup>77)</sup>라는 철학적 사고를 의학적으로 실천하는 독특한 경우도 흔히 있어왔다.

또한 동양철학적인 형성이론은 한의학의 天人觀, 生命觀(生理), 疾病觀(病理), 養生觀 및 治療觀의 전반적인 기초이론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동양사회의 사상·정치·문화 및 사회구성에 조차 영향을 주고 있는 儒學의 經典과 같은 한의학의 原典은 그 著作의 시기, 배경, 표현문자, 표현방식에 있어서도 儒學의 經典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原典이 한의학의 思想과 理論 및 實際를 含蓄하고 있어 그 것을 현대 언어로 번역하고 그 함축적 의미를 해석하여 중국에는 理解한다는 점과, 후대에 著作된 한의학 著書들도 표현문자가 漢字를 통한 漢文형식이라는 점 등 인문과학적 영역에서 다루어지는 文史哲의 연구대상과 理解의 목적 및 解釋의 방법은 한의학이 질병과 치료를 다루는 醫學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서양의학 및 자연과학과 다른 인문과학적인 한의학의 特殊性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한의학 연구방법의 분석 틀 중의 하나로 特殊性은 합리적이며 타당한 근거가 있다.<sup>78)</sup>

77) 성호준, 유의의학의 사상적 배경에 관한 이해. 대한한의학 원전학회지. 대한한의학원전학회. 2003. 16(1). p.7. ‘儒醫’의 개념에 관해서는 현대에서도 정설이 없다. 중국의 설공침(薛公 沈)은 儒醫를 廣義와 狹義로 나누어 정의하고 있다. 광의의 儒醫는 ‘일정 정도의 문화지식과 소양을 갖추고 있으며 도교나 불교를 신봉하지 않는 醫者이고, 협의의 儒醫는 儒學을 신봉하거나 儒學을 익힌 醫者와 醫學을 습득한 儒者나 醫學을 업으로 하는 儒者로 분류한다. 한편 임은(林殷)도 儒醫를 4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는 醫學을 유행의 하나로 보아 자신의 보건에 이용한 이로 왕안석(王安石), 소강절(邵康節), 이정(二程), 주희(朱熹) 등을 들고 있다. 둘째로 醫學이론의 연구를 중심으로 책을 쓰고 이론을 세우거나 의학서적의 편집에 힘쓴 이로 황보밀(皇甫謐), 왕도(王燾) 등이 있고, 셋째는 관직에 있으면서 醫業을 행한 이로 南宋의 육유(陸游)가 대표적이다. 넷째는 진정으로 醫師를 직업으로 삼은 경우인데, 주진형(朱震亨), 이시진(李詩珍), 손일규(孫一奎) 등이 대표적이다.

78) 최환수. 한의학 방법론에 관한 고찰. 대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p.3.

한의학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또 세계화하기 위해서는 단지 한의학적인 설명뿐만 아니라 일반화 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객관적인 근거나 합리적인 설명을 제시해야 한다.

### 3. 韓醫學 研究方法의 普遍性

#### 1) 自然科學的 研究方法論

인체의 生理와 病理 및 治療에 관계되는 비의식의 물질을 대상으로 하는 한의학의 자연과학적 영역은 자연과학과 현대의학에 대하여 普遍性을 가지며 이러한 普遍性은 한의학의 연구방법에 있어서도 普遍적인 방법을 요구한다. 연구방법의 普遍性은 연구대상에 대한 접근법과 관찰·가설·실험·검증으로 이루어지며 연구과정에서는 논리적 推論(推理)의 形式的 研究方法으로 귀납적 방법이 사용된다.

歸納法(induction, inductive inference)은 특수한 개별 사실들을 토대로 하여 일반적 원리를 이끌어 내는 방법<sup>79)</sup>으로 여기서의 특수한 사실들은 한의학에서의 경험으로 診斷에서 望·聞·問·切診의 개별적 또는 복합적 정확성, 辨證에 따른 治法의 연계성, 한약의 단일 또는 복합적 효과성, 침의 효과성, 임상의 증례에 따른 치료술의 정형화 등의 연구에 적용될 수 있으며 이때의 경험은 인위적으로 조작된 실험과 證例 축적 두 경우가 모두 포함된다.

연구대상의 內在的 분석을 위한 內在的 研究方法은 연구과정 내부에 내재된 인과성의 분석으로 生理와 病理의 인과성, 病理와 治療의 인과성, 특정 한약재와 특정 질병과의 단일 또는 복합적 인과성 등을 규명하는데 있다.

#### 2) 自然科學的 研究方法의 區分

##### ① 形式的 研究方法

##### - 歸納的 接近方法

귀납적 접근은 經驗主義에 근거한 實證主義의 대표적인 접근방법으로 한의학을 구성하는 철학적 개념으로의 접근이나 原典의 연역적 의미나 구조로의 접근이 아니다.

귀납적 접근은 경험할 수 있는 사실에 속하는 診斷, 辨證, 治療, 處方, 治療效果에 있어서 주관적이고

79) 강영계, 송병욱 共著. 논리학개론. 서울. 박영사. 1986. p.132.

개별적인 사안을 통해 가설에 부합되는 또는 가설과 부합되지 않는 결과를 도출하려는 연구방법의 일관성이다.

예를 들어, 『노인치매의 치료에 관한 한의학적 연구』<sup>80)</sup> 논문을 살펴보자.

치매의 원인, 증상, 진단과 치료의 임상증례를 정리한 논문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임상증례에 관한 연구에서 사용되는 귀납적 접근이 없다. 우선 임상증례 연구임에도 치매의 원인을 ‘內經 素問’에서 필연적인 연역적 접근을 통해 이미 도출시켜 놓고 ‘桃仁復蘇湯’<sup>80)</sup>과 ‘補中益氣湯’<sup>81)</sup>를 처방한 사례를 몇 개 들고 있고 그에 앞서 辨證의 경우도 특정 변증을 나열한 것에 불과한 내용 없는 변증을 기술하고 있다.

이 논문의 연구방법 상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原典의 치매에 대한 병인과 병리 및 치료와 실제 임상 간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목적의 논문이 아님에도 原典을 연역적으로 설정하여 귀납적인 임상증례의 수집에 제한을 초래한 점이며, 둘째로 정리된 변증, 처방의 내용이 없고 임상증례의 사례가 극히 적어 그러한 사례를 일반화하기에도 무리가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의 근본적 원인은 임상증례 연구임에도 귀납적 접근이 없다는 것이다. 즉 귀납적 방법으로 경험적 사실에 접근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귀납적 접근은 당위적인 필연성에 대하여 독립적이어야 한다. 한의학에 있어서 原典은 한의학의 모든 원인과 결과를 당위적이며 필연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原典에게서 독립적이기는 말처럼 쉽지 않다.

그러나 原典은 일종의 選言的 텍스트로 原典을 연역적으로 解釋하고 理解하는 것과 原典을 검증하는

것은 어떠한 측면에서는 동일한 영역으로 原典을 理解하고 그러한 理解를 현상으로 재현하는 것은 오히려 原典을 완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歸納的 論理構造 方法

원인과 결과가 연구과정에서 논리적으로 전개되는 논리체계로서의 귀납적 논리구조의 방법은 한의학에서 단일한 命題(특정한 한의학적 사실이나 이론)나 또는 연구과정 전체의 논리전개에 적용되는 방법으로, 연구에 사용되는 用語(한의학적 의미를 한정하고 한의학적 정의를 표현하며 한의학적 명제를 구성), 假說(한의학적 용어로 구성된 추정된 명제), 推論構造(한의학적 전제와 가설을 통해 한의학적 사실이나 이론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단일 명제의 논리구조나 전체 연구과정의 논리구조)를 그 대상으로 하며 크게 귀납적 추론구조, 귀납적 추론의 종류, 假說, 定義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첫째, 귀납적 추론의 구조이다. 특수한 사실들을 토대로 하여 일반적 원리를 이끌어 내는 추론의 방법을 귀납적 추론<sup>82)</sup>이라 한다. 그 기본적 예를 들어 보면 아래와 같다.

예시 1) a b c d는 p이다.

a b c d는 s이다.

모든 s는 p이다.<sup>83)</sup>

여기에서 前提가 되는 p와 s는 서로 다르지만 p와 s는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으므로 p와 s는 동일한 것으로 “모든 s는 p이다.”라는 結論을 증명하게 되고 이것이 귀납적 추론의 기본구조가 되는 것이다.

한의학에서 자연과학적 실험은 앞서와 같은 귀납적 추론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즉 전제되는 원인들 간의 분석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여 원인과 결과의 인과성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귀납적 추론구조를 이용하여 臟腑辨證에 따른 한약재의 사용을 귀납적으로 추론한 예를 아래와 같이 들 수 있으며 이러한 구조는 단일한 명제

80) 송미령, 윤창열. 노인치매의 치료에 관한 한의학적 연구. 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소 논문집. 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소. 1997. 6(1). p.42.

桃仁復蘇湯

도인 10g, 생지황 10g, 감초 6g, 현명분 10g, 계지 10g, 용골 30g, 모려 30g, 복신 15g, 창포 10g, 원지 10g, 오공 10g

81) 補中益氣湯

황기 1.5돈, 인삼 백출 감초 각1돈, 당귀신 진피 각5분, 승마(酒洗) 시호(酒洗) 각3분

82) 강영계, 송병옥. 논리학개론. 서울. 박영사. 1986.p.132.

83) 강영계, 송병옥. 논리학개론. 서울. 박영사. 1986.p.132.

(문장)의 추론과정에서도 사용되고 전체 연구과정의 논리구조에도 사용될 수 있다.

예시 2) 胃 實證에 쓰는 平胃散에는 蒼朮이 쓰인다.

胃 實證에 쓰는 胃苓湯에는 蒼朮이 쓰인다.  
∴ 胃 實證에는 蒼朮이 쓰인다.

귀납적 추론의 종류에는 統計的 귀납추론, 因果的 귀납추론, 類比추론이 있다. 통계적 귀납추론은 전체에서 전체를 구성하는 부분들을 다량 경험하여 결론에 도달하는 추론방법으로 그 경험의 양이 지나치게 많을 경우에는 계량적인 수량으로 처리하여 개괄하는 統計를 사용하기도 한다. 통계적 귀납추론의 예는 아래와 같다.

예시 3) a, b, c, d, e... 등등은 죽는다.  
a, b, c, d, e... 등등은 사람이다.  
∴ 사람은 죽는다.<sup>84)</sup>

위의 통계적 귀납추론을 이용하여 한약재 '性'의 작용을 추론한 예는 아래와 같으며 이러한 통계적 귀납추론은 한의학에서 原典과 이론 등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실시된 각종 실험으로 경험의 집합을 통해 실득력 있는 객관성을 입증하는데 사용 될 수 있다.

예시 4) 黃芩, 黃連, 黃柏, 龍膽草, 苦參... 등등은 '性'이 '寒'이다.  
黃芩, 黃連, 黃柏, 龍膽草, 苦參... 등등은 清熱작용을 한다.  
∴ 清熱작용을 하는 한약재는 '性'이 '寒' 하다.

인과적 귀납추론은 전제되는 현상들 간의 인과관계를 밝혀 결과를 도출하는 추론방법으로 예는 아래와 같다.

예시 5) ABC는 abc와 함께 발생한다.  
ADE는 ade와 함께 발생한다.  
... 와 함께 발생한다.  
따라서 A는 a의 원인이다.<sup>85)</sup>

위의 인과적 귀납추론을 이용하여 辨證과 症狀의 인과관계를 귀납적으로 추론한 예는 아래와 같으며 이러한 인과적 귀납추론은 한의학에서 臟腑 상호 간의 생리와 병리적 연관성을 입증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예시 6) 脾氣虛證이면 소화액 분비와 흡수장애가 생겨 입맛이 없고, 팔다리가 무력하며 부종이 있고 대변이 무른 증상이 생긴다.  
胃氣虛證이면 위장연동운동이 약화되어 소화불량, 명치 아래가 불편하고 噯氣가 자주 나오며 헛배가 부르고 식곤증이 생긴다.  
따라서 脾胃의 氣虛는 소화기 질환의 원인이다.

類比추론은 전제인 A의 사례가 a, b, c, d라는 성질을 지니고 있는데, 전제 B의 사례가 a, b, c의 성질을 지니고 있어 A와 類似的한 경우 B도 d라는 추론이다.

예시 7) A는 a, b, c, d이다.  
B는 a, b, c이다.  
∴ B도 d일 것이다.<sup>86)</sup>

위와 같은 類比推論의 방법으로 처방의 효과를 추론한 예는 아래와 같으며 한의학에서 유사하지만 개별적 차이를 보이는 개별적 사례들 간의 관계를 입증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예시 8) 滋陰降火湯은 腎水不足과 陰虛火動을 치

84) 강영계, 송병욱, 정우열. 동서의학의 만남과 삶의 질. 제21회 삶의 질 심포지엄.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2000. p.136.

85) 강영계, 송병욱, 정우열. 동서의학의 만남과 삶의 질. 제21회 삶의 질 심포지엄.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2000. 1986. p.139.

86) 강영계, 송병욱, 정우열. 동서의학의 만남과 삶의 질. 제21회 삶의 질 심포지엄.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2000. p.144.

료한다.

六味地黃元은 虛火上炎을 치료한다.  
∴六味地黃元은 腎水不足을 치료한다.

다음으로, 假說은 어떤 경험 가능한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어떤 하나의 원리를 설정하여<sup>87)</sup> 관찰된 것을 기초로 관찰된 사실을 설명하는 논리적 命題의 일종으로 실험을 통해 검증된다.

하지만 한의학에서는 자연과학적 영역을 연구하는 경우에도 흔히 이러한 가설이 연역적인 定言命題로 의 형식을 취하여 검증되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검증되어 이미 일반화된 대상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다.<sup>88)</sup>

定義는 名辭의 뜻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sup>89)</sup>으로 한의학의 경우에는 病名이 구체화되지 않고 증상으로 설명되어 있고 외부에서 보이는 象으로 분석하고 종합하며 개괄하는 ‘形象思惟’와 그것을 바탕으로 ‘象’의 개념을 추상화하는 ‘抽象思惟’의 방법<sup>90)91)</sup>으로心を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그것을 다시 臟腑에 配屬하는 등 物的인 것과 心的 개념을 표현하고 융합하였는데, 이는 한의학의 자연과학적 연구방법에 있어서 귀납적 추론을 위하여 命題를 구성하는 名辭의 定義와 큰 문제를 야기한다. 하지만 한의학의 用語를 定義하여 名辭를 만들 경우에 한의학 用語가 간직하고 있는 의미와 내용을 多義的, 多面的으로 포괄하여 개별적인 사용에 있어 다양한 경우의 數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여야 하며 이것으로 초래되는 혼란은 당연한 연구의 과정이며 그러한 과정을 통해 用語의 定

義는 정립될 수 있다.

定義 중에서 論理的 定義는, 定義하려는 名辭가 지는 본질적 속성을 정확하게 지시하는 것으로 예는 아래와 같다.

예시 9) 인간은 논리적 동물이다.<sup>92)</sup>

위와 같은 논리적 정의의 경우는 한의학에서도 心이 가장 중요한 기관임을 표현하는 등 臟腑의 설명을 통해 찾을 수 있다.

發生的 定義는 발생 내지 성립조건과 과정을 정의하는 것으로 예는 아래와 같다.

예시 10) 물은 수소와 산소가 화합된 물질이다.<sup>93)</sup>

이러한 발생적 定義도 한의학에서 ‘精’이 腦髓와 骨, 脈, 筋, 肉 등의 발생과정에 관여하는 定義<sup>94)</sup>로 설명하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귀납적 논리구조의 방법은 한의학 연구과정에 논리체계를 부여함으로써 관찰과 실험 및 검증에 이르는 원인과 결과의 인과성을 보다 설득력 있게 증명하는 연구방법이다. 또한 그 과정은 定義가 우선 성립하고 그 다음에 命題라는 推論構造가 성립되며 이것으로 假說을 설정 순서로 구조화된다.

② 內在的 研究方法

자연과학 특히 의학에 있어서 내적 연구방법의 목

87) 강영계, 송병옥. 논리학개론. 서울. 박영사. 1986. p.146.

88) 각주 (76) 참조.

89) 강영계, 송병옥. 논리학개론. 서울. 박영사. 1986. p.44.

90) 영추연구집성간행위원회 編著. 영추연구집성 上券. 익산. 영추연구집성간행위원회. 2006. p.219.

“所以任物者 謂之心 心有所憶 謂之意 意之所存 謂之志 因志而存變 謂之思 因思而遠慕 謂之慮 因慮而處物 謂之智”

“事物을 맡는 것을 心, 心에 記憶되어 있는 것을 意, 意在存續되는 것을 志, 志를 變化하는 것을 思, 思를 따라 멀리까지 생각하는 것을 慮, 慮를 따라 事物에 對處하는 것을 智라고 합니다.”

91) 최환수. 한의학 방법론에 관한 고찰. 대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pp.76-79.

92) 강영계, 송병옥, 정우열. 동서의학의 만남과 삶의 질. 제21회 삶의 질 심포지엄.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2000. p.45.

93) 강영계, 송병옥, 정우열. 동서의학의 만남과 삶의 질. 제21회 삶의 질 심포지엄.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2000. p.48.

94) 영추연구집성간행위원회 編著. 영추연구집성 上券. 익산. 영추연구집성간행위원회. 2006. p.294.

“人始生 先成精 精成而腦髓生 骨爲幹 脈爲營 筋爲剛 肉爲牆 皮膚堅而毛髮長 穀入于胃 脈道以通 血氣乃行”

“사람이 태어날 때에 먼저 精이 이루어지고, 精이 이루어진 후에 腦髓가 생긴다. 인체에서 骨은 줄기와 같고 脈은 氣血을 運營하고 筋은 인체를 단단하게 묶고 肉은 인체를 담과 같이 둘러싸고 皮膚가 堅固해진 후에 毛髮이 자란다.”

적과 내용은 원인과 결과의 因果性을 밝히는 것이다.<sup>95)</sup> 따라서 한의학이 가지는 자연과학적 普遍性의 內在的 研究方法는 다른 아닌 연구대상의 관찰을 통해 얻어진 前提, 즉 경험된 사실들이 원인으로서 결과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이어야 한다.

서양의학의 인과관계에서 원인은 흔히 원인(etiology), 병인(pathogenesis), 기전(mechanism) 등으로 표현<sup>96)</sup>되며 한의학에서는 ‘辨證’을 통해 종합적으로 표현된다. 그러나 의학에서 인체의 건강이나 질병과 관련된 원인과 결과가 물리학에서의 온도, 압력, 부피의 관계<sup>97)</sup>에서처럼 명확한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의학적 인과관계의 불명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인과관계 樣相의 구분과 인과관계의 판정기준을 살펴봐야 한다.

인과관계의 원인은 직접원인(direct cause)과 간접원인(indirect cause)로 나뉘는데 직접원인은 원인이 결과를 초래하는데 중간과정이 없이 직접 작용하는 것이며 간접원인은 원인이 중간과정을 거쳐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다.<sup>98)</sup> 이런 원인은 필요성과 충분성에 따라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되는데,

첫째 ‘필요요인(necessary)’은 어떤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원인이 되는 요인이 있어야 하는 경우로 그 요인을 ‘필요원인(necessary)’이라 한다. 필요원인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 질병인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결과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그 요인이 개입되어야 하는 것으로<sup>99)</sup> 한의학에서 正氣가 훼손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질병이 발생하지 않으며 그러한 상태에서 七情傷의 內因과 外因의 外邪 또는 內外不因의 病因이 작용해야 질병이 발생하는 것에서 그

예를 찾아 볼 수 있다.

둘째 ‘충분원인(sufficient cause)’은 어떤 요인이 있으면 반드시 그 결과가 초래되지만 그 결과를 초래하는 원인은 많을 수 가 있다는 것으로<sup>100)</sup> 한의학에서 正氣가 훼손된 상태에서 질병이 발생했다면 內因과 外因의 外邪 또는 內外不因의 다양한 病因이 있을 수 있다는 것에서 그 예를 찾아 볼 수 있다.

셋째 ‘필요충분원인’은 원인이 있는 경우 반드시 결과가 초래되고 그 결과는 원인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의학 분야에서는 그 예를 찾기 어려운데 外因의 직접적이고 강력한 충격으로 인체의 생명현상에 직접 관여하는 중요기관(심장이나 뇌 등)에 傷害를 가하여 사망하는 극단적이고 제한적 상황에서 가능하다.

넷째 ‘비필요·비충분원인’의 경우 원인은 결과를 초래하는데 분명히 관여하지만 필요원인도 충분원인도 아닌 경우를 말하는데<sup>101)102)</sup> 주로 의학적 인과관계에서 많이 보이는 것이다.

이와 같이 원인의 작용에 따른 인과관계 樣相의 구분은 인과관계에서의 원인이 된 요인과 결과 間의 개별적 분석을 가능하게 하며 보다 복합적인 원인과 결과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원인과 결과의 인과관계를 판정하는 것은, 특히 의학에서는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인체가 객관적으로 정상적인 상태에 있다고 하여도 특정 병인에 대하여 반응이 특이하게 발생할 수 있는 유전적 또는 체질적 경향을 누구나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원인과 결과 간의 연관성의 정도, 일관성 및 유사성이 확보 될 때 인과관계를 판단 할 수 있다.

연관성의 정도는 ‘상대위험도’<sup>103)</sup>나 ‘교차비’로 표

95) 신영수, 안윤옥, 신상구, 유근영, 박병주, 김창엽, 안형식. 의학연구방법론.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7. p.18.  
 96) 신영수, 안윤옥, 신상구, 유근영, 박병주, 김창엽, 안형식. 의학연구방법론.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7. p.18.  
 97) 신영수, 안윤옥, 신상구, 유근영, 박병주, 김창엽, 안형식. 의학연구방법론.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7. p.19.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이 증가하면 기체의 용적은 줄어들고 압력이 감소하면 용적은 증가한다.  
 98) 신영수, 안윤옥, 신상구, 유근영, 박병주, 김창엽, 안형식. 의학연구방법론.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7. p.20.  
 99) 腎水不足은 火를 발생시킨다.

100) 口瘡의 원인은 胃熱, 陰虛, 신경성, 심폐질환 등이 있다.  
 101) 老化는 腎精이 弱화로 일어난다.  
 102) 신영수, 안윤옥, 신상구, 유근영, 박병주, 김창엽, 안형식. 의학연구방법론.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7. pp.20-22.  
 103) 신영수, 안윤옥, 신상구, 유근영, 박병주, 김창엽, 안형식. 의학연구방법론.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7. pp.28-29.  
 상대위험도 :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하여 상대위험도가 높다.

현되는데 이것을 통해 관련성의 정도가 크면 클수록 인과관계의 가능성은 커지게 된다.

일관성<sup>104)</sup>의 경우, 원인으로 작용될 수 있는 요인을 격리시켰는데도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면 원인과 결과의 인과관계가 분명해진다.

유사성은 일종의 인과관계가 분명해지기 위한 유사한 사례의 量的인 상태로 유사한 사례가 많을수록 인과관계를 증명하기위한 증거가 강화되는 것이다.<sup>105)</sup>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가장 흔히 사용하는 것중에 ‘可逆의 인과관계(reversible associations)’는 명료한 ‘필요충분원인’의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요인이 원인이 되고 그러한 원인이 결과를 도출하는데 작용하는 요인과 원인과 결과 間的 직접적·간접적 관계, 量的·質的인 관계, 교차관계, 상승관계, 억제 관계 등 단계적이고 복합적이며 유기적인 관계의 의학적 관계에서 과연 모두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이런 점에서 한의학에서 陰陽五行이라는 상호 유동적 관계성의 방법과 각종 辨證을 통한 다양한 기준의 八綱辨證, 臟腑辨證, 衛氣營血辨證, 氣血津液辨證 방법, 즉 肝에 病이 있을 때에 원인과 증상에서 心과 腎, 土와 肺의 相生·相剋·相乘·相侮의 五行學說을 통해 병인과 기전의 인과관계를 유동적으로 辨證하는 방법과 다양한 기준(팔강, 장부, 위기영혈, 기혈 진액 등)의 변증방법 등으로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인과관계 연구의 정확도를 제고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4. 韓醫學 研究方法 特殊性

##### 1) 人文科學的 研究方法論

인간의 정신세계를 통해 만들어진 의학과 관련된 정신, 도덕, 철학, 문화, 역사 등을 연구대상으로 하

환절기, 특히 봄에는 風邪에 의한 질병 발생의 가능성이 커진다.

체질에 따라 특정 질병은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

104) 신영수, 안윤옥, 신상구, 유근영, 박병주, 김창엽, 안형식. 의학연구방법론.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7. p.31.

105) 신영수, 안윤옥, 신상구, 유근영, 박병주, 김창엽, 안형식. 의학연구방법론.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7. p.33.

는 한의학의 인문과학적 영역은 자연과학과 현대의 학에 대하여 특수성을 가지며 이러한 특수성은 한의학 연구방법에 있어서도 관찰과 실험 및 검증이라는 자연과학적 방법이 아닌 인문과학적인 특수한 방법을 요구한다.

이러한 한의학 연구방법의 특수성은 연구대상의 접근법과 그 대상에 대한 해석학적 이해의 과정이라 할 수 있는데 연구과정에서의 논리적 推論(推理)의 形式的 研究方法으로는 연역적 방법이 사용된다.

演繹法(deduction, deductive inference)은 이미 알고 있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판단을 기초로 해서 어떤 새로운 판단을 내리는 방법<sup>106)</sup>으로, 한의학에 있어서 한의학의 의학적 사상과 그 실체를 고대에서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漢字로 記述한 ‘原典’과 한 의학을 형성한 기초학문으로서의 동양철학 및 오랜 역사를 통해 전승되고 발전되어 온 한의학의 역사와 문화사적 연구가 그 연구대상이 된다.

연구대상의 내재적 분석을 위한 내재적 연구방법은 한의학을 내면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文史哲, 즉 인문학으로서 原典의 해석학적 이해의 방법, 한의학의 철학적 이해, 한의학의 역사적 이해방법이 있다.

##### 2) 人文科學的 研究方法의 區分

###### ① 形式的 研究方法

###### - 演繹的 接近方法

연역적 접근방법은 보편적 사실이나 원리를 기준의 판단으로 하여 새로운 판단을 결정하는 접근방법으로, 당위적인 價値의 產物인 文史哲과 같은 인문과학적 영역의 접근방법으로 적합하다.

여기에서 기존의 판단이라 할 수 있는 것은 한의학 原典 그 자체 또는 原典의 연역적 구조로 이루어진 의학적 命題, 한의학의 철학적 기반인 동양철학의 經典 그 자체 또는 經典의 연역적 구조로 이루어진 철학적 命題, 또한 오랜 역사를 통해 저술된 한의학 저서의 연역적 내용 등이다.

이러한 기존의 判斷에 속하는 한의학적 文史哲을

106) 강영계, 송병옥. 논리학개론. 서울, 박영사. 1986. p.66.

演繹의 方法에서의 前提로 하여 해석적 이해와 이를 통한 具體化 및 內容化를 이루려하는 演繹의 接近方法은 “前提가 되는 判斷”을 정하는 것이 접근방법의 주요한 부분이다.

한의학에서 보편적 사실이나 원리로 인정되어 前提로서의 判斷은 동양철학에서 由來한 ‘道’, ‘氣’, ‘陰陽五行’과 한의학의 자체에서 정립된 ‘臟象’, ‘經絡’, ‘五運六氣’ 등의 기초이론이 해당한다. 하지만 辨證, 診斷, 本初, 處方 등은 오히려 귀납적으로 접근되어야 할 경험적 사실이나 사실들이다.

文史哲의 인문과학적 영역에 속하는 한의학의 연역적 접근방법은 방법상의 한계에 따른 측면이 있다. 즉 우리가 우리의 정신적 영역<sup>107)</sup>과 그것에서 유래한 產物<sup>108)</sup> 또는 정신과 현상적 사실이 하나가 되어 분리하기 힘든 그 무언가<sup>109)</sup>에 대해서 자연과학적 관찰과 실험 및 검증 등의 귀납적 접근방법으로는 연구될 수 없고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영역에 속하는 것들 중에서 일반화된 또는 일반화되었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 우선 인정하고 난 후 그것이 개별적인 사안들과의 관계를 통해 일반화되는지 확인하여 다시 우리에게 인정되는 것이 연역적 접근방법이며 그것의 목적은 연구대상을 구체화시키고 내용화시키는 것이다.

#### - 演繹的 論理構造 方法

前提와 結論이 연구과정에서 논리적으로 전개되는 논리체계로서의 연역적 논리구조의 방법은 크게 직접적인 연역추론과 간접적인 연역추론으로 나뉜다.<sup>110)</sup>

직접적인 연역추론의 논리구조의 방법은 오직 하나의 前提에서 직접 새로운 판단이 되는 結論을 이끌어 내는 논리방법<sup>111)</sup>으로 예는 아래와 같다.

예시 11) 인간은 생물이다.

인간은 무생물이 아니다.<sup>112)</sup>

이와 같은 직접적인 연역추론의 논리구조는 原典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 이러한 연역추론의 논리구조는 한의학에서 寒熱, 陰陽 등에서처럼 상반된 비교를 통한 추론구조를 자주 볼 수 있으며 이것은 한의학의 사고방식이 절대성 보다는 상호 상대성에 있기 때문이다.

예시 12) “其知道者 法於陰陽 和於術數 食飲有節 起居有常 不妄作勞 故能形與神 俱而盡終 其天年 度百歲乃去”

→ 오래 사는 것은 양생의 도를 따르는 것이다.

“以酒爲漿 以妄爲常 醉以入房 以欲竭其 精 以耗散其真 不知持滿 不時御神 務快 其心 逆於生樂 起居無節 故半百而衰 也”<sup>113)</sup>

→ 오래 사는 것은 양생의 도를 따르지 않는 것이 아니다.

간접적인 연역추론의 논리구조의 방법은 두 개 이상의 命題를 前提로 삼아 새로운 命題를 이끌어 내는 논리방법<sup>114)</sup>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三段論法 중에 定言三段論法이며 그 예는 아래와 같다.

예시 13) 모든 동물은 생물이다. (大前提)

모든 사람은 동물이다. (小前提)

∴ 모든 사람은 생물이다. (結論)<sup>115)</sup>

112) 강영계, 송병욱, 논리학개론. 서울. 박영사. 1986. p.68.

113) 소문연구집성간행위원회 編著. 소문연구집성 1권. 익산. 소문연구집성간행위원회. 2001. pp.6-7.

“養生의 방법을 잘 아는 사람은 陰陽의 변화법칙을 따르고, 修養의 방법에 잘 조화되게 살고, 음식에 절도가 있고, 생활에 규칙이 있었으며, 망령되어 몸을 수고롭지 않으므로 형체와 정신을 모두 온전하게 하여, 그 타고난 수명을 다 마칠 수 있어서 100세를 넘어서 죽는다.”

“술로 음료를 삼고, 망령되어 행동하는 것을 예사롭게 하며, 취한 상태에 房事를 하여 精을 없애고, 眞氣를 耗散시켜 충만함을 유지할 줄 모르며, 때에 알맞게 정신을 통제하지 않으며, 마음에 쾌락만을 힘써서, 養生하는 즐거움에 역행하고, 생활에 절도가 없으므로 나이가 50세만 되어도 쇠약하게 됩니다.”

114) 강영계, 송병욱, 논리학개론. 서울. 박영사. 1986. p.84.

107) 天理, 道德 등.

108) 陰陽五行으로 분류된 자연, 인간 등.

109) 한의학에서의 心은 해부학적 심장의 기질에 한정되지 않고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것까지 포괄한다.(각주 No. 93. 참조.)

110) 강영계, 송병욱, 논리학개론. 서울. 박영사. 1986. pp.67-68.

111) 강영계, 송병욱, 논리학개론. 서울. 박영사. 1986. p.68.

이와 같은 定言三段論法의 논리구조를 통해 오행의 相生·相剋關係를 설명하는 예는 아래와 같으며 여기에서의 논리진행의 방향은 木에서 火의 生방향, 金에서 木의 剋방향이므로 결론에서는 논리진행 방향이 火에서 金의 剋방향이 되어 相生과 相剋이 설명된다.

예시 14) 모든 木은 火를 生한다. (大前提)  
모든 金은 木을 剋한다. (小前提)  
∴ 모든 金은 火에게 剋한다. (結論)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연역적 논리구조의 방법은 결정된 판단으로 인정된 原典의 文句, 이론과 철학적 命題 등에 있어서 접근방법과 논리구조를 제공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② 內在的 研究方法

인간의 정신세계를 통해 만들어진 정신, 도덕, 철학, 문화, 역사 등 인문과학적 特殊性을 가지는 한의학의 文史哲은 개별적으로는 原典學, 醫史學, 儒學의 분야로 구분되기도 하는데 이것은 한의학 原典의 解釋學의 研究方法, 한의학의 歷史學의 研究方法, 한의학의 哲學的 研究方法으로 나누어 보아야 한다.

이러한 한의학의 내적 연구방법은 解釋的 理解<sup>116)</sup>를 위한 연구방법이다.

여기서 ‘解釋’의 의미는 특정 文字로 표현된 文句의 언어학적 이해, 즉 外面的 理解<sup>117)</sup>뿐만이 아니라 언어적으로 표현된 그 본래의 의미와 현대적 의미를 구분하고 종합하여 이해하는, 즉 內面的 理解<sup>118)</sup>를 포함한다.

한의학의 내적 연구방법으로서의 解釋的 理解는 네 가지의 규칙으로 통제되어야 한다.<sup>119)</sup>

115) 강영계, 송병욱. 논리학개론. 서울. 박영사. 1986. p.85.  
116) 신규현. 인문과학의 특징과 그 연구방법론에 관한 문제. 인문연구.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82. 1. p.254.  
117) 신규현. 인문과학의 특징과 그 연구방법론에 관한 문제. 인문연구.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82. 1. p.256.  
118) 신규현. 인문과학의 특징과 그 연구방법론에 관한 문제. 인문연구.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82. 1. p.256.  
119) 신규현. 인문과학의 특징과 그 연구방법론에 관한 문제. 인문연구.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82. 1. p.258.

첫째, 해석학적 尺度의 內在性 규칙으로 해석의 기준을 해석되어야 할 대상 자체 內에서 찾아야 하고 해석자가 자의적으로 외부에서 가져온 기준에 따라 해석해서는 안 된다.

한의학 原典 해석의 경우에 쓰인 原典 내부의 사용된 漢文의 일관된 樣態를 종합하여 해석해야함을 보여주는 규칙이다.

둘째, 의미의 연관성 규칙으로 어떠한 대상을 해석할 때에 이와 관련된 모든 다른 대상들과 분리·독립시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과 관련된 것들과의 전체적인 연관성 속에서 해석해야 한다.

한의학의 原典 해석의 경우에 原典이 저작된 시기의 시대적 상황, 문화적 전통과 배경, 사회제도 등 관련된 다양한 면을 종합하여 해석해야 하며 한의학의 역사적 연구 또한 이 규칙에 해당된다.

셋째, 이해의 活性化의 규칙으로 해석자는 그가 해석하는 대상을 통하여 逆으로 저작자의 체험을 재구성하고 그것을 스스로 체험하는 일종의 再체험을 함으로써 고정된 저작자의 체험이 해석자에 의해서 다시 活性化되는 것이다.

넷째, 해석학적인 意味一致의 규칙으로 해석자는 언제나 자신의 理解가 편견이나 고집에 사로잡히지 않고 저작의 의도에 합치하려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

- 元典 解釋學의 研究方法(文)

한의학의 이론적 체계와 이론의 내용을 담고 있는 原典은 그 연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 複數의 저자에 의해 쓰였으리라는 추측과 原 記錄의 亡失 및 後世로의 傳授過程에서 完璧을 期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들로 인해 야기된 文章의 重複, 意味의 曖昧함, 文章 前後의 矛盾 및 無連繫 등으로 原文 자체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sup>120)</sup>

이러한 해석 연구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한의학 原典의 해석 연구방법은 두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겠다.

첫째, 言語의 障礙<sup>121)</sup>로, 原典이 漢文이라는 言語

120) 김유성. 황제내경 그 해석상의 諸문제. 대한원전사학회지. 1990(4). p.1.

로 쓰였다는 점과 그 사용된 漢文은 현재와는 다른 오래 전의 漢文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原典의 특수한 言語的 배경과 상황을 감안하여 그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儒學 經典 연구에서 주로 漢代와 唐代에 행해졌던 訓詁學<sup>122)</sup>의 연구방법이 필요하다. ‘訓詁’는 本來 字句의 해석을 말하는 것으로 한의학 原典의 해석에서도 한 글자 한 구절의 의미를 충실하게 解明하는 訓詁學적 연구방법이 보다 철저히 요구된다.

둘째, 한의학 原典의 系統性, 즉 한의학 原典은 동양철학(儒家·道家) 經典에 前後로 하여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면서 漢代의 ‘黃帝內經’을 중심으로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의학 관련 書籍 모두가 이론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先代의 이론을 後代에 구체화하는 구조를 가짐으로써 전체적으로 계통성을 보이게 된다. 이러한 한의학 原典의 系統性은 原典의 해석학적 연구방법으로 清代에 儒學 經典 연구에서 행해졌던 考證學<sup>123)</sup>의 연구방법이 필요하다. 考證學은 본래 文獻의 考證을 통해 한 글자 한 구절의 의미를 검토하여 실증적으로 연구하는 방법으로 한의학 原典의 系統性에 따른 文獻의 考證을 통해 原典을 보다 실증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sup>124)</sup>

#### - 歷史學的 研究方法(史)

한의학은 오래 전 시대의 文化的 배경 속에서 성립된 것으로 정치, 경제, 사회구조, 풍습, 종교, 도덕, 학문, 당시의 의학적 지식, 자연환경, 당시 유행하던 질병, 전쟁 등 文化 전반에 걸친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으면서 전래되고 발전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文化적 產物인 한의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歷史學的 研究方法를 통해 해당 시기의 文化史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의학에서의 역사학적 연구방법은 일반적인 역사학적 방법과는 다르다. 즉 일반적인 역사학에

서는 상호 이질적이며 개별적인 史料들을 다양하게 수집하여 일반적 인과성이 아닌 史料를 통해 알게 된 역사적 사실들의 요소들과 결과 간에서 보여 지는 變化樣態의 해석을 통해 역사의 전개(발전, 퇴보 또는 정체)를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것이지만, 한의학에서의 歷史學的 研究方法는 한의학적 사상, 이론 등을 이해하기 위하여 全 시대를 통한 다양한 역사적 자료들을 한의학적 사상과 이론 등과 맞추어 보는 것으로, 일반적 역사학은 歸納法的이지만 한의학에서의 역사학은 演繹法的이다.

韓醫學의 연역법적인 역사학적 연구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醫史學의 경우에서와 같이 일정한 연구주체에 대하여 일관성 있는 이론을 一群의 인물들이 저술을 통해 連續的으로 영향을 끼는 것을 연역적 방법의 기준으로 醫家(各家) 또는 醫學派로 분류<sup>125)</sup>하여 비교 연구하는 醫史學的 方法和 韓醫學의 原典과 그것에 내재한 의미를 해석하여 이해하기 위해 全 시대의 文化史 전반을 연구하는 文化史의 方法으로 구분할 수 있다.

#### - 哲學的 研究方法(哲)

한의학의 철학적 연구방법은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는 한의학이 자연과 인간, 생리와 병리, 치료와 양생에 대하여 가지는 시각과 그것의 표현이 철학적인 사유방식과 철학적인 형상방식을 취한다는 점에서 한의학을 철학적으로 연구해야 하는 것이다.

둘째로 한의학을 형성하고 있는 ‘道’, ‘氣’, ‘陰陽五行’, ‘精氣神’ 등의 이론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이론들은 동양철학에서 緣由된 것으로 한의학 연구에 있어서 일종의 ‘先理解’<sup>126)</sup>이라 할 수 있다. 즉 儒學의 동양철학적 사고방식이나 이론을 이해함으로써 한의학의 형성이론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의학의 철학적 연구방법으로 儒學의 經典과 관련 書籍 및 그 속에 내재한 철학적 이론들을 연구하는 것은 이러한 방법의 일환이

121) 신규현. 인문과학의 특징과 그 연구방법론에 관한 문제.

인문연구.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82. 1. p.260.

122) 김광중. 한의학의 연구방법. 동서의학. 대구한의대. 1988. p.12.

123) 김광중. 한의학의 연구방법. 동서의학. 대구한의대. 1988. p.14.

124) 王氷의 原典 解釋방법인 ‘以經解經’도 이것에 해당된다.

125) 진대순, 증용, 황정덕 엮음. 맹용재, 박현국, 박경남, 김남일, 신영일, 김용진, 안상우, 김훈, 김홍균, 차용석 옮김. 각 가학설. 대성의학사. 고양. 2004. p.3.

126) 신규현. 인문과학의 특징과 그 연구방법론에 관한 문제. 인문연구.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82. 1. p.260.

다.127)

한의학과 동양철학의 관계는 매우 직접적이고 광범위하다. 儒學의 경우 때로는 ‘儒醫’<sup>128)129)</sup>라는 개념을 통해 儒學의 철학적 사상을 현상의 영역에 속하는 의학을 통해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경우에서 보듯 한의학의 뿌리를 철학적인 儒學으로 보고 그러한 형이상학적 사상을 형이하학적 의술로 구체화하고 실천한다는 것은 한의학을 철학적으로 이해하고 그 철학을 실용화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sup>130)</sup>

### 3) 東西醫學 比較研究方法

동서의학 比較研究方法이 한의학 연구방법의 특수성에 포함되는 것은 한의학이 처한 동서의학 충돌과 현대의 서양의학의 성과를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동서의학에 있어서 기능적·질적인 類似性에도 불구하고 사용되는 용어나 개념의 量的·質的 차이로 比較研究를 통한 의학적 영역의 확대가 지연되거나 때로는 비교연구 방법에 있어서 접근방법이 비과학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하고 量的인 연구사례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본문에서는 동서의학의 비교연구의 방법에 있어서 비교를 위한 접근방법으로 비교대상의 적합성<sup>131)</sup>을 살펴보고 그러한 적합성을 통해 확인하려는 인과관계<sup>132)</sup>에 대하여 살펴본다.

127) 이천 著. 醫學入門. 서울. 남산당. 1991. p.2391.  
 “蓋醫出於儒 非讀書明理 終是庸俗昏昧 不能疏通變化”  
 “대개 의학은 유학에서 나왔다. 책을 읽고 이치를 밝히지 않으면 마침내 용렬하고 속되며 혼미해져 변화에 소통할 수 없다.”  
 128) 각주 (74) 참조.  
 129) 성호준. 유의학의 사상적 배경에 관한 이해. 대한한의 학원전학회지. 대한한의학원전학회. 2003. 16(1). pp.7-8.  
 宋代의 朱熹 “醫學小道論”  
 元代의 吳澄 “醫儒同道”  
 130) 儒學과 韓醫學의 관계는 ‘格物致知’를 통하여 사물의 이치를 알게 되는 인식의 방법과 나를 중심으로 외부(外邪)의 자극에 자신의 我(정상적인 자신, 천리를 따르는 자신)를 지키며 문체의 중심과 시작에 나를 세우는 것에서 동일한 사고를 가진다.  
 131) 유병완. 세포에 대한 한의학적 비교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pp.17-18.  
 132) 유병완. 세포에 대한 한의학적 비교연구. 원광대학교 석

#### ① 比較對象 適合性

비교연구는 과학적인 인과관계 모형을 설정하여 대상의 비교를 통한 연구결과를 도출하는 경우에 연구대상의 선정과정이 얼마나 합리적이었는지가 연구 전체 과정의 합리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sup>133)</sup> 즉, 서양 의학적 개념의 비교대상과 동양의 학적 개념의 비교대상이 상호 비교되기 위해서는 대상으로서의 적합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서양 의학적 개념인 ‘細胞’와 동양의학적 개념인 ‘精’을 비교할 경우에, ‘細胞’와 ‘精’은 비교대상으로서의 적합성을 확보해야 한다.

‘細胞’는 인체를 구성하는 물질적 단위성<sup>134)</sup>을 가지며 ‘精’은 ‘身之本也’<sup>135)</sup>라는 표현 등 많은 사례를 통해 인체를 구성하는 물질적 성질을 내포하고 있다. 이와 같이 ‘細胞’와 ‘精’이 가지는 인체 구성의 물질적 단위성으로 두 대상 간의 비교대상 적합성을 확보하게 된다.

#### ② 因果關係

동서의학의 비교연구에 있어서 두 비교대상 간의 용어나 개념의 量的·質的 차이는 연구과정을 통해

사학위논문. 2006. pp.14-15.

133) Kelsey JL, Thompson WD, Evans AS. Methods in observational epidemiology. 1st ed. Oxford University Press. pp.12-18.

134) Willian K. Purves, David Sadava, Gordon H. Orians and H. Craig Heller. Life The Science of Biology. New York. W.H FREEMAN AND COMPANY. 2005. pp.54-59.

- 1) 생명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구성단위이다.
- 2) 세포는 최소 10,000 가지의 서로 다른 유형의 분자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분자를 활용하여 환경에 반응하고, 스스로 재생산하기 위하여 물질과 에너지를 전환시킨다.
- 3) 세포구조는 핵과 세포내막계, 세포소기관, 세포골격, 세포벽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135) 소문연구집성간행위원회 編著. 소문연구집성 1권. 익산. 소문연구집성간행위원회. 2001. p.146.  
 “夫精者身之本也. 故藏於精者, 春不病溫, 夏暑汗不出者, 秋成風癘, 此平人脈法也.”  
 “精이란 것은 人身의 근본이므로 精을 잘 간직하는 사람은 봄에 溫病에 걸리지 않으나, 여름 더위에 땀을 적당히 내지 않은 사람은 가을에 風癘이 발생하게 되니 이것은 平人의 脈法입니다.”

증명되는 인과관계를 부정할 가능성을 높게 한다. 이러한 점은 인과관계의 판단기준이 연관성 정도, 용량과 반응의 관계, 가역적 인과관계, 일관성, 생물학적 타당성, 특이성<sup>136)</sup> 등의 직접적이고 실험실적이며 계량적인 방법일 경우에는 그 부정 가능성은 더욱 크게 증가한다. 하지만 동서의학의 비교연구 목적은 궁극적으로 두 비교대상의 동일성이나 동질성을 찾기 위한 것도 포함하지만 그것에 앞서 동서의학 간의 의학적 접근을 전제로 의학적 개념을 보다 확대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목적이 앞선다.

이러한 이유로 동서의학의 비교연구에서 초기에 사용될 수 있는 인과관계의 판정 기준은 ‘類似性’<sup>137)</sup>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연구의 방법을 설정 하여야 할 것이다.<sup>138)</sup>

아울러 이러한 類似性은 비교연구를 통한 유사한 사례의 경우가 중첩될수록 그 인과성은 강화 된다.<sup>139)</sup>

### Ⅲ. 結論

科學은 지식체계의 結果 또는 지식체계화의 過程이나 그 方法으로 定義될 수 있다. 이러한 科學의 體系性, 過程性 및 方法性은 觀察와 實驗 및 檢證을 통한 再現可能性과 原因에 의한 結果 間의 內在的 因果性, 그리고 再現可能性과 因果性의 論理體系 또는 論理構造로 설명된다.

韓醫學이 “科學이라는 것”과 韓醫學을 “科學적으로 研究한다는 것”은 엄격히 구별되는 의미를 가진다. 즉, 醫學的인 지식체계의 結果로서의 의미와 지식체계화의 過程과 方法으로서의 의미 구별이다.

韓醫學은 오랜 傳統속에서 ‘天人合一’의 東洋哲學

的 思考를 이용한 ‘氣學說’, ‘陰陽五行學說’ 등의 形成理論을 중심으로 ‘五運六氣’, ‘臟象學說’과 ‘經絡學說’, ‘氣·血·津液’ 등의 生理理論과 ‘病因學說’, ‘病機學說’의 病理理論 및 ‘診斷’을 통한 ‘辨證’으로 ‘治法’을 찾고 ‘鍼灸’와 本草를 이용한 ‘湯液’으로 治療하는 醫學이다. 이러한 韓醫學의 體系의이고 一貫性 있는 醫學의 지식체계의 結果는 韓醫學을 科學, 즉 醫科學이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根據를 확인하였다.

韓醫學은 現在 오랜 歷史만큼이나 다양한 面을 가지고 있다. 哲學的·精神的 意味로의 自然과 人間, 客觀的인 物質的 意味로의 自然과 人間을 대상으로 生理·病理·治療를 抽象과 形象의 方式으로 漢文이라는 言語와 文字를 통해 表現하였고 우리는 그것을 古代로부터 現在까지 醫學的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韓醫學 속에는 韓醫學의 모든 것을 종합하여 담아내고 있는 ‘黃帝內經’ 등의 原典과 그것을 구성하는 漢文, 韓醫學을 탄생시킨 哲學的 思考와 그것을 具體化 시킨 東洋哲學의 黃老思想과 儒學, 오랜 기간에 걸쳐 계승되고 발전되어 오면서 다양한 시대의 政治, 經濟, 社會, 文化, 思想, 歷史, 風習, 戰爭, 疾病 등의 文化史의 背景으로서의 歷史 등 人文科學的 領域이 내재되어 있으며, 韓醫學의 經驗을 보다 엄밀하게 再現하려는 自然科學的 領域으로, 診斷에서 望·聞·問·切診의 개별적 또는 복합적 正確性, 辨證에 따른 治法의 連繫性, 한약의 단일 또는 복합적 效果性, 침의 效果性, 임상의 증례에 따른 治療術의 定型化 등 사뭇 異質的 領域을 包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아직 韓醫學에서는 이와 같은 人文科學的 領域과 自然科學的 領域을 包括하는 綜合的인 認識과 그 方法이 구체화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韓醫學이 醫學的 지식체계화의 過程과 方法으로 연구된다는 의미에서 科學的으로 研究되고 있는가는 아직 충분한 설득력을 가지지 못한다.

물론, 個別的으로 人文科學的·自然科學的 領域의 研究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을 綜合하고 形式化시키지는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은 韓醫學이 科學的으로 研究된다는 根據로서의 韓醫學 研究方法論이 確實히 요구되는 점이

136) 신영수, 안윤옥, 신상구, 유근영, 박병주, 김창엽, 안형식. 의학연구방법론.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7. pp.26-32.

137) 신영수, 안윤옥, 신상구, 유근영, 박병주, 김창엽, 안형식. 의학연구방법론.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7. p.33.

138) 유병완. 세포에 대한 한의학적 비교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pp.14-15.

139) 각주 (99) 참조.

다.

이러한 綜合的이고 包括的인 韓醫學 研究方法論의 必要性에서 시작된 본 논문은, 韓醫學에 內在된 自然科學的 領域과 人文科學的 領域에 따른 普遍性和 特殊性을 韓醫學 研究方法 研究에서의 분석 틀로 설정하여 研究方法를 考察하였다.

韓醫學 研究方法에서의 普遍性은 客觀化와 一般化의 研究方法를 가진 自然科學과 現代醫學에 대한 普遍性을 의미하며, 特殊性은 醫學임에도 불구하고 解釋의 理解의 研究方法를 가진 韓醫學의 自然科學과 現代醫學에 대한 特殊性을 의미한다.

韓醫學 研究方法의 普遍性에서, 研究方法은 形式的 研究方法와 內在的 研究方法로 구분되는데, 形式的 研究方法은 論理的 接近方法과 論理的 推論方法을 말하며 內在的 研究方法은 內在的인 理解方法으로서의 因果關係를 말한다.

韓醫學의 普遍的인 形式的 研究方法은, 특수한 사실들을 토대로 하여 일반적 원리를 이끌어 내는 歸納的方法으로 연구대상에 접근하여 경험할 수 있는 사실에 속하는 診斷, 辨證, 治療, 處方 및 治療效果에 있어서 主觀的이고 個別的인 사안을 통해 假說에 附合되는 또는 附合되지 않는 結果를 도출하려는 방식과 이러한 방식으로 研究過程을 一貫되게 이끌어가는 歸納的 論理構造를 말한다.

歸納的 論理構造는 論理的이거나 發生的인 ‘定義’를 통해 用語를 明瞭化하여 觀察된 사실들을 일정한 原理로 세우는 ‘假說’을 설정하여 統計, 因果, 類比를 이용한 歸納的 推論構造를 형성하는 것이다.

韓醫學의 普遍的인 內在的 研究方法은, 觀察된 事實과 實驗 및 檢證의 過程에서 연구자하는 하는 內在的 理解를 위한 因果關係를 聯關性, 一貫性, 類似性을 기준으로 判斷하는 方法이며, 이것은 韓醫學에서도 辨證의 形式으로 실행되지만 辨證의 경우는 因果關係를 지나치게 단일한 수준의 方法으로 判斷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補完하는 것 또한 韓醫學에서 사용하는 五行의 相生, 相剋, 相乘, 相侮 關係를 이용한 복합적인 辨證과 八綱(表裏, 虛實, 陰陽, 寒熱), 臟腑, 衛氣營血, 氣血津液辨證 등의 다양한 기준을 적극 활용하는데서 해결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韓醫學 研究方法의 特殊性에서, 研究方法은 形式的 研究方法와 內在的 研究方法로 구분되는데, 形式的 研究方法은 論理的 接近方法과 論理的 推論方法을 말하며 內在的 研究方法은 韓醫學의 人文科學의 特性인 文史哲의 解釋的 理解를 말하며, 여기서의 ‘解釋’은 특정 文字(漢字)로 표현된 文句의 言語學의 理解, 즉 ‘外面的 理解’뿐만이 아니라 언어적으로 표현된 그 本來의 意味와 現代의 의미를 구분하고 종합하여 理解하는 ‘內面的 理解’ 모두를 포함한다.

韓醫學의 特殊한 形式的 研究方法은, 이미 알고 있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判斷을 기초로 해서 어떤 새로운 判斷을 내리는 演繹의 方法으로 韓醫學에 있어서 醫學의 思想과 그 實체를 古代에서 現在까지 사용되고 있는 漢字로 記述한 ‘原典’, 韓醫學을 形成한 基礎學으로서 東洋哲學, 오랜 歷史를 통해 繼承되고 發展되어 온 韓醫學의 歷史性을 解釋하여 理解하려는 接近方式과 이러한 方式으로 研究過程을 一貫되게 이끌어가는 論理構造를 말한다.

演繹的 論理構造는 過程을 거치지 않는 直接的인 演繹推論과 中間過程을 거치는 間接的인 演繹推論으로 나뉘는데, 間接的 演繹推論에서 三段論法의 定言 三段論法의 경우에는 韓醫學의 五行 相生·相剋 등을 설명할 수 있는 推論이기도 하다.

韓醫學의 特殊한 內在的 研究方法은, 韓醫學에 內包된 文史哲을 통해 解釋的 理解를 위한 研究方法으로, 韓醫學 原典의 解釋學的 研究方法, 歷史學的 研究方法, 哲學的 研究方法으로 나뉜다.

韓醫學 原典의 解釋學的 研究方法은, 原典이 漢文이라는 言語로 쓰였다는 점과 그 사용된 漢文은 현재와는 다른 오래 전의 漢文이라는 言語의 障敝를 극복하기 위해 한 글자 한 句節의 의미를 충실하게 解明하는 訓詁學적 연구방법이 요구되며 또한 韓醫學 原典은 東洋哲學(儒家·道家) 經典에 前後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면서 漢代의 ‘黃帝內經’을 중심으로 현대에 이르기 까지 韓醫學 韓醫學 관련 書籍 모두가 理論的으로 連結되어 있으며 先代의 이론을 後代에 구체화하는 구조를 가지는 韓醫學 原典의 系統性은 文獻的 考證을 통해 한 글자 한 구절의 의미를 검토하여 實證的으로 研究하는 考證學적 研究方法이 요구

됨을 살펴보았다.

韓醫學의 歷史學的 研究方法은, 韓醫學이 오래 전 시대의 文化的 배경 속에서 성립된 것으로 政治, 經濟, 社會, 文化, 思想, 歷史, 風習, 戰爭, 疾病 등의 歷史的인 文化的 背景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았다는 점에서 韓醫學을 解釋하고 理解하기 위해서는 歷史學적 研究方法이 요구된다. 그러나 韓醫學에서의 歷史學的 研究方法은, 相互 異質的이며 개별적인 史料들을 다양하게 수집하여 일반적 因果性이 아닌 史料를 통해 알게 된 歷史의 사실들의 요소들과 결과間에서 보여 지는 變化樣態를 理論的으로 解釋하는 일반적인 歷史學과는 달리 韓醫學의 思想과 理論 등을 理解하기 위하여 前 時代를 통한 다양한 歷史的 資料들을 韓醫學의 思想 및 理論 등과 맞추어 보는 것으로 일반적 歷史學은 歸納法的이지만 한의학에서의 역사학은 演繹法的이다.

또한 韓醫學의 演繹법적인 역사학적 연구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醫史學的의 경우에서와 같이 일정한 연구주제에 대하여 일관성 있는 이론을 一群의 인물들이 저술을 통해 連續的으로 영향을 끼는 것을 演繹적 方法의 기준으로 醫家(各家) 또는 醫學派를 분류하여 비교 연구하는 醫史學的 方法과 韓醫學의 原典과 그것에 내재한 의미를 해석하여 이해하기 위해 全 시대의 文化史 전반을 연구하는 文化史的 方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韓醫學의 哲學的 研究方法은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첫째는 韓醫學이 自然과 人間, 生理와 病理, 治療와 養生 등에 가지는 視覺과 그것의 表現이 哲學的인 思惟方式과 哲學的인 形象方式을 취한다는 점에서 哲學的 研究方法이며, 둘째는 韓醫學을 形成하고 있는 ‘道’, ‘氣’, ‘陰陽五行’, ‘精氣神’ 등의 理論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理論들이 東洋哲學에서 緣由된 것으로 韓醫學 연구에 있어서 일종의 ‘先理解’이라 할 수 있다. 즉 東洋哲學인 儒學을 이해함으로써 韓醫學을 理解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끝으로, 韓醫學 研究方法의 特殊性에서 東西醫學의 比較研究는 두 가지의 特殊性을 가지는데, 첫째 비교 대상의 適合性이다. 東西醫學에서 사용되는 用語와 그 概念은 量的·質的으로 同一하지 않다. 그러한 이

유로 比較研究의 대상들은 반드시 量的·質的 概念의 類似性을 통해 비교대상의 適合性을 우선 확보해야 한다.

둘째는 比較研究의 目的인 因果性의 단계적 설정이다. 즉, 東西醫學 比較研究의 目的은 因果關係의 證明을 통한 同一性과 同質性의 규명이지만 비교대상 間의 量的·質的 차이로 우선 類似性의 규명이 최종 因果關係 證明 보다 事例의 量的·時間的으로 앞선다. 이 경우에 類似性은 事例의 量的의 증가에 따른 類似性의 重疊性으로 類似性이 더욱 강화됨을 살펴 보았다.

이상과 같이 살펴 본 韓醫學 研究方法은, 研究方法의 인식을 시작으로 하여 韓醫學이 內部에 包括하고 있는 自然科學的인 普遍化된 基準(普遍性)과 人文科學的인 文化的 基準(特殊性)을 綜合하여 論理形式 構造나 接近法의 形式的 研究方法과 內的 因果關係와 理解를 위한 內在的 研究方法 등으로 구분되고 구체화되어 韓醫學 內部的 體系性을 強化하고 科學性을 證明하는 설득력 있는 方法으로 活用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韓醫學 內部에서의 個別的, 恣意的, 一方的의 研究方法에서 오는 混亂과 非效率을 구체적인 연구 방법론을 통해 規律하여 韓醫學이 인접학문이나 새로운 학문과의 接近, 競爭 및 融合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구체화된 方法으로도 活用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현재 韓醫學界에서의 研究方法論에 대한 인식 부족과 그 구체적인 연구나 미진한 根本的 原因 중에 하나로 研究方法論에 대한 教育의 不在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즉 研究方法論에 대한 教育이 현재 韓醫學관련 教育機關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研究方法論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로 인해 韓醫學에 대한 科學的 思考나 客觀的인 研究過程이 정립되지 못함으로써 韓醫學 內部的 體系性은 갈수록 모호해지고 外部의 隣接 및 新學問과의 接近이나 競爭 및 融合의 구체적인 方法이 제시되지 못하여 個別的이고 恣意的이며 一方的인 研究가 漫然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韓醫學 研究方法論에 대한 教育이 반드시 先行되어야함을 강조한다.

### 參考文獻

#### <논문>

1. 강영계, 송병옥, 정우열. 동서의학의 만남과 삶의 질. 제21회 삶의 질 심포지엄.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2000. p.14, 44, 45, 48, 132, 136, 139, 144.
2. 김광중. 한의학의 연구방법. 동서의학. 대구한의대. 1988. p.10, 12, 14.
3. 김시천. 상상력의 과학 기. 음양오행 그리고 한의학적 신체론. 시대와 철학. 2006. 17(2). p.178.
4. 김유성. 황제내경 그 해석상의 諸문제. 대한원전 의사회지. 1990(4). p.1.
5. 성호준. 유의학의 사상적 배경에 관한 이해.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대한한의학원전학회. 2003. 16(1). p.7. pp.7-8.
6. 송미령, 윤창열. 노인치매의 치료에 관한 한의학적 연구. 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소 논문집. 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소. 1997. 6(1). p.42.
7. 신규현. 인문과학의 특징과 그 연구방법론에 관한 문제. 인문연구.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82. 1. p.249, 250, 251, 253, 254, 256, 258, 260. pp.251-252.
8. 어영서. 과학이란 무엇인가 vs 과학은 얼마나. 과학철학. 2006. 9(1). p.207.
9. 유병완. 세포에 대한 한의학적 비교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pp.14-15, 17-18.
10. 전세일. 동양의학의 과학적 연구. 제4회 한의학연구원 학술세미나. 한의학연구원. 1998. p.115.
11. 최환수. 한의학 방법론에 관한 고찰. 대전대학교박사학위논문. 1999. p.1, 3, 11, 46, 50, 60, 61, 70. pp.17-45, 51-61, 61-69, 76-79, 76-83.

12. 허남진. 한의학의 과학성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과학사상. 1993.p.235, 239, 240.

#### <단행본>

1. 강영계, 송병옥. 논리학개론. 서울. 박영사. 1986. p.132, 66, 68, 84, 85. pp.67-68.
2. 김종열, 김우중. 동서의학 비교연구. 서울. 계축문화사. 1996. p.14, 26. pp.17-78.
3. 노자 著. 장기근 譯. 노자. 서울. 삼성출판사. 1983. p.84.
4. 소문연구집성간행위원회. 소문연구집성 1권. 익산. 소문연구집성간행위원회. 2001. p.151, 146, 186. pp.6-7.
5. 소문연구집성간행위원회. 소문연구집성 3권. 익산. 소문연구집성간행위원회. 2001. p.143.
6. 소문연구집성간행위원회. 소문연구집성 4권. 익산. 소문연구집성간행위원회. 2001. p.248.
7. 소문연구집성간행위원회. 소문연구집성 7권. 익산. 소문연구집성간행위원회. 2001. p.229.
8. 소문연구집성간행위원회. 소문연구집성 8권. 익산. 소문연구집성간행위원회. 2001. p.45, 129, 117.
9. 신영수, 안운옥, 신상구, 유근영, 박병주, 김창엽, 안형식. 의학연구방법론.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7. p.10, 14, 15, 18, 19, 20, 31, 33, 36, 38. pp.20-21, 26-32, 28-29.
10. 여봉천 著, 조혜인 譯. 신 동양의학개론. 서울. 일중사. 1994. p.2, 14.
11. 영추연구집성간행위원회. 영추연구집성 上券. 익산. 소문연구집성간행위원회. 2006. p.219, 294.
12. 영추연구집성간행위원회. 영추연구집성 中券. 익산. 소문연구집성간행위원회. 2006. p.904, 1016.
13. 영추연구집성간행위원회. 영추연구집성 下券. 익산. 소문연구집성간행위원회. 2006. p.1512.
14. 장희익. 동서양의 학문체계 어떻게 서로 다른가. 삶과 온 생명. 서울. 솔출판사. 1998. p.26.

- pp.21-27.
15. 장희익. 삶과 운생명. 서울. 솔출판사. 1999.  
p.26. pp.21-27
  16. 진대순, 증용, 황정덕 엮음. 맹응재, 박현국, 박경남, 김남일, 신영일, 김용진, 안상우, 김훈, 김홍균, 차웅석 옮김. 각가학설. 고양. 대성의학사. 2004. p.3.
  17. 차상원 譯. 대학. 서울. 학원출판공사. 1993.  
p.41-54.
  18. 한국전통연구소 기초의학연구부. 한의학개설. 서울. 영림사. 2003. pp.19-20, 167-197.
  19. Albert Menne 著, 김보현 譯. 방법론. 서울. 서광사. 1996. p.19. pp.167-194.
  20. Kelsey JI, Thompson WD, Evans AS. Methods in observational epidemiology. 1st ed. Oxford University Press. 1986. pp.12-18.
  21. Walter Theimer 著, 김삼룡 譯. 과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홍익제. 1992. p.19, 22, 23. pp.25 -26.
  22. Willian K. Purves, David Sadava, Gordon H. Orians and H. Craig Heller. Life The Science of Biology. New York. W.H FREEMAN AND COMPANY. 2005. pp.54-59.

